

#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랑하는

님께서서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라면서 정중히 이 책을 드립니다.

-----



 **미션하우스**

부설 기관/ 미션하우스 출판사 · 어린이전도의집  
사역/ 문서선교 · 어린이캠프 · 주교사 강습회, 캠프

THE  
WONDERS  
OF  
GOD



WILLIAM MACDONALD



GOSPEL FOLIO PRESS

THE WONDERS OF GOD  
by William MacDonald  
Copyright © 1996  
William MacDonald  
All rights reserved



국제 저작권법 협약에 의한 한국어판 출판 허락서

William MacDonald  
401 MacArthur Blvd.  
San Leandro, CA 9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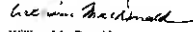
July 1999  
Johanna Malpricht  
Missionhouse  
Eun-Choul Lee  
Ga Yang 1 Dong 145-42, Gang Seo Gu  
Seoul 157-201, Republic of Korea

Dear Sister in Christ:

This will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the two signed Translation Agreements, and the signed Publisher's Agreement. You now have permission to proceed with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Wonders of God*.

You also have permission to use illustrations in the book provided that they are of good quality art. We would not want anything that is amateurish. If you can use the ones that are in the German edition, I have confidence that they would be suitable.

With Christian greetings and best wishes:

In Calvary's Bonds,  
  
William MacDonald

본서 한국어판은 원문인 영어판 저자와의 국제 저작권법 협약에 의하여 출간되었으며 한국어 판권은 미션하우스와 발행인에게 있음. 사진자료 제공: 독일어판(독일 CLV 출판사), 편집실



#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창조

섭리

구원



- 과학을 통해 보는 창조주의 실제적 증거 -  
THE WONDERS OF GOD

목 차  
(CONTENTS)



□ 제 I 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創造) / 21  
(THE WONDERS OF GODS IN CREATION)

□ 제 II 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攝理) / 103  
(THE WONDERS OF GODS IN PROVIDENCE)

□ 제 III 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救援) / 165  
(THE WONDERS OF GODS IN REDEMPTION)

---

세부내용  
(Detailed Contents)

제 I 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創造)  
(THE WONDERS OF GOD IN CREATION)



□ 개 관 □ /22

☒ 신묘막측하게 설계하신 우리의 몸 ☒ /24  
(The Wonder of The Human Body)

□ 생명체의 설계도, DNA (DNA, The Blueprint of Life) /24

□ 인체의 잠재 능력(The Potential of The Human Body) /26

□ 이상을 보는 거룩한 그릇, 눈(Sight) /28

□ 4,000여 가지 냄새를 구별하는 코(Smell) /30

□ 진실을 말하는 입(Speech) /31

□ 말씀을 듣는 귀(Hearing) /32

□ 출생 선물로 받은 평생 의복, 피부(Touch) /33

- 인체 기계공학의 걸작, 손(The Hand) /34
- 우주 내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체, 뇌(The Brain) /34
- 한계치를 모르는 기억력(Memory) /38
-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 형질(Heredity) /39
  
- 여러 감정(Emotions) — 두려움, 분노, 슬픔, 절망감 /40
- 하루 10만 번 생명 펌프, 심장(The Circulatory System) /41
- 번식작용의 신비(The Wonders Reproduction) /41
- 정신과 육체의 관계 /43  
(Relation Between the Mental and Physical)
  
- 신체의 치유 능력(The Body's Healing Power) /43
- 영과 혼(The Spirit and Soul) /44
  
- ❖ 별 반짝이는 우주 ❖ /45  
(The Starry Heaven)
  
- 광대한 우주(The Magnificent Universe) /46
- 생명이 태동하는 별, 지구(Planet Earth) /50
  - 지구와 태양간의 거리(The Distance From The Sun)
  - 지구의 크기(The Size of The Earth)
  - 지구의 경사도(The Tilt of The Earth)
  - 지구의 회전운동(The Earth's Rotation)
  - 대기(The Atmosphere)
  - 오존층(The Ozone Layer)
  - 물(Water)



☒ 육지에 사는 생명체의 신비 ☒ /54

(WONDERS ON THE LAND)

- 새끼를 훈련시키는 사자(The Lion) /54
- 다재다능한 오리너구리(The Platypus) /55
- 어린 새끼를 함께 돌보는 기린 가족(The Giraffe) /56
- 암컷의 통제를 따르는 샤모아 산양(The Chamois) /56
- 어떤 곳에도 달라붙는 도마뱀붙이(합개)(The Gecko) /56
- 귀소 본능을 지닌 집 고양이(The Domestic Cat) /57
- 출산 일을 조절하는 노루(The Roe Deer) /57

☒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신비 ☒ /59

(WONDERS IN THE SEA)

- 가장 큰 몸집을 지닌 긴수염 고래(The Blue Whale) /59
- 돌고래의 이웃 사랑(The Dolphin) /60
- 수컷이 임신하는 해마(海馬)(The Sea Horse) /61

☒ 공중에 나는 생명체의 신비 ☒ /62

(WONDERS IN THE AIR)

- 피리새의 건축 기술(The Weaver Bird) /63
- 철새의 이동 본능(The Migratory Instinct) /63
- 어린 휘파람새의 이동 능력 /64  
(The Lesser Whitethroat Warbler)
- 탈 염분 체계를 갖춘 갈매기(The Sea Gull) /65

- 하나님이 알려주신 새들의 방법 대책 /66  
(Who Taught the Bird?)
- 갈매기들의 조개 식사(Clam Chowder) /67
- 뛰어난 비행술을 지닌 벌새(The Hummingbird) /68
- 물을 길어 나르는 모래 뇌조(雷鳥)(The Sand Grouse) /69
  
- 빨간 벼슬 딱따구리의 뱀 퇴치법 /69  
(The Red-cockaded Woodpecker)
-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박새(The Titmouse) /71
- 군주왕나비의 귀소 본능(The Monarch Butterfly) /72
- 자기 체중의 50 배를 나르는 개미(The Ant) /72
- 다른 곤충 몸에 알을 낳는 말벌(The Ichneumon Wasp) /73
  
- ❖ 기타 경이로움 ❖ /74  
(OTHER WONDERS)
  
-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들(The Interdependence of Things) /74
- 물속으로 날아다니는 검은지빠귀(The Water Ouzel) /76
- 배우자 없이 번식하는 처녀 생식(Virgin Birth) /77
- 벌꿀이 식탁에 올려지기까지(Well-traveled Honey) /77
  
- 꿀벌들의 냉방장치(Busy Bees) /78
- 피조물에게 주신 방호장비(Armor) /79
- 무지개색 분광현상(Iridescence) /81
- 만유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힘, 만유인력(Gravity) /81
- 하나님의 난방 장치, 멕시코 만류(The Gulf Stream) /82

- 하나님의 선 특허권(Prior Claim) / 82
- 동물의 위장술과 의태(Camouflage and Mimicry) / 83
- 전기를 생산해내는 생물들(Electricity) / 84
- 수중에서도 생존하는 곤충들(Underwater Survival) / 84
  
- 새들의 비행 기술(Avionics) / 84
- 미끼와 함정 술책을 쓰는 동식물(Lures and Traps) / 86
- 일류 건축 기술자, 비버와 직공개미 / 87  
(The Construction Gang)
- 음파 탐지법을 쓰는 박쥐와 돌고래(Sonar) / 89
  
- 오리의 방수복(Waterproofing) / 90
- 꽃과 식물(Flowers and Vegetation) / 90
- 약초 치료 비법(Herbal Remedies) / 92
- 생명이 숨쉬는 씨앗(Seeds) / 92
  
- 식물 번식의 신비, 꽃가루받이(Pollination) / 93
- 약재료가 되는 하찮은 버섯들(Even Fungi) / 93
- 표준 시계의 원리, 원자의 진동(Atom Vibrations) / 94
- 그밖에 수없이 많은 것들(Much, Much More) / 94
  
- 맺는 말(Conclusion) / 94

## 제 Ⅱ 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攝理) (THE WONDERS OF GODS IN PROVIDENCE)



#### ☒ 개 관 ☒ /104

- 어둠 속에서의 안전한 착륙(Happy Landing) /111
- 한 성도의 의문이 팀북투에서 해결되다 /112  
(A Saint's Doubts Dissolved in Timbuktu)
- 한 성도의 출항을 막으신 이유 /115  
(The Stops of a Good Man)
- 그분이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Was It An Angel?) /115
  
- 적시 적소(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118
- 오늘 식사는 공짜입니다(No Free Lunches? Here's One) /119
- 신분을 확인해준 성경 구절(The Identifying Verse) /121
-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122  
(God Speaks through His Word)

- 낙타에서 떨어진 사건과 콜레라를 통한 인도하심 /122  
(Guided by a Camel Fall and Cholera)
- 하나님의 섭리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23  
(Providence, Not Coincidence)
- 거미줄의 능력(The Power of Spider Web) /124
  
- 구하기도 전에(Before they call...) /125
- 마침 그 때에(In the Nick of Time) /126
- 무심코 던진 말(A Seemingly Chance Remark) /127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등석 /128  
(God's First Class Provision)
- 특이한 성경 구절(Extraordinary Texts)/131
  
- 천사 합창단(Angelic Choir) /132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33  
(Give Us This Day...)
- 진퇴양난 시의 도움의 손길(A Very Present Help) /135
- 불과 한 뼘 차이로 구한 목숨(Saved by a Few Inches) /138
- 작고 희미한 목소리(The Still, Small Voice) /139
  
-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계산(God's Perfect Timing) /141
- 예비된 좌석(Pre-assigned Seating) /142
- 적시에 공급된 기적의 원조 물품 /144  
(Miraculous Provision in the Nick of Time)
- 왜 그 선장은 항로를 바꾸었을까? /145  
(Why Did the Skipper Change His Course?)

- 안전하기엔 너무나 가까운 거리 /146  
(Too Close For Comfort)
- 부시맨이 구출하러 오다(Bushmen to the Rescue!) /148
- 정확한 금액(The Exact Amount) /153
- 러시아에서의 특송 배달 )/155  
(Very Special Delivery in Russia)
  
- 찬장이 텅 비었지만, 길지 않은 기간 )/156  
(Bare Cupboard but not for Long)
- 기적의 토마토(Miracle Tomatoes) )/157
- 저자와의 독대(Meet the Author) )/159
  
- 맺는 말(Conclusion) )/160

## 제 Ⅲ 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救援) (THE WONDERS OF GOD IN REDEMPTION)



#### ☒ 개 관 ☒ /166

- 기쁨을 찾은 히피족(The Hippie Who Became Happy)/168
-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시크교도, 썬다 싱 /169  
(Sundar Singh, The Sikh Who Sought And Found God)
- 성경을 거부했던 자들의 회심 /171  
(How Some Bible Critics Were Won)
- 그리스도께로 향한 풍향계 /175  
(The Weather Vane That Pointed to Christ)
  
- 진주만에서 천국까지(From Pearl Harbor to Paradise) /177
-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179  
(The Words that Wouldn't Die)
- 결코 우연일 수 없는!(Incredible Coincidence) /181
- 형식에 매이지 않은 전도(Unconventional Evangelism) /183

- 영혼을 일깨우는 충격적인 전도 /185  
(Sledgehammer Evangelism)
-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루이스 /186  
(From Atheism to Christ)
- 무심코 복음을 엿듣고 구원받음 /189  
(Saved by Overhearing the Gospel)
- 지옥행이 아닌 천국행 /189  
(No Longer Hell Bound, But Heaven Bound)
  
- 요새에서 보초 근무중 구원받음 /191  
(Caught Off Guard in Gibraltar)
- 선한 행실을 통한 전도(Won Without a Word) /192
- 한 영혼을 구원한 도둑맞은 성경 /193  
(The Unsolved Case of a Stolen Bible)
- 되돌아 온 성경(Another Bible That Wouldn't Die) /196
- 마약 중독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로 /198  
(The Conquest of Addiction)
  
- 10 달러짜리 어설픈 약속(A Ten Dollar Promise) /200
- 구원의 확신을 준 예상 밖의 성경구절 /202  
(An Unlikely Verse Answers an Absurd Objection)
- 은혜의 트로피, 멜 트로터 /205  
(Mel Trotter, A Trophy of Grace)
- 남편 살해자를 용서한 멘다 튜너 (Menda Tuner, Who  
Forgave The Repentant Murderer of Her Husband) /208
- 테레사의 간증(Teresa's Testimony) /211



-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가랴(사가) /213  
(Zachariah(Zach) Finds The Saviour)
- 잃었다 찾은 영혼, 그레그 /215  
(Greg, The Lost and Found Soul)
- 회심한 이슬람교도, 압텔 /218  
(Abdel, The Converted from the Muslim)
-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슬람교도, 아메드 /219  
(Ahmed, The Jordanian)
  
- 제가 어디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221  
(Where Can I Find the Messiah?)
- 진리를 앎으로 자유를 얻은 요한(Johan's Story) /223
  
- 맺는 말(Conclusion) /225
  
- 발행인 글 /228
  
- 각주(ENDNOTES) /233



“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 1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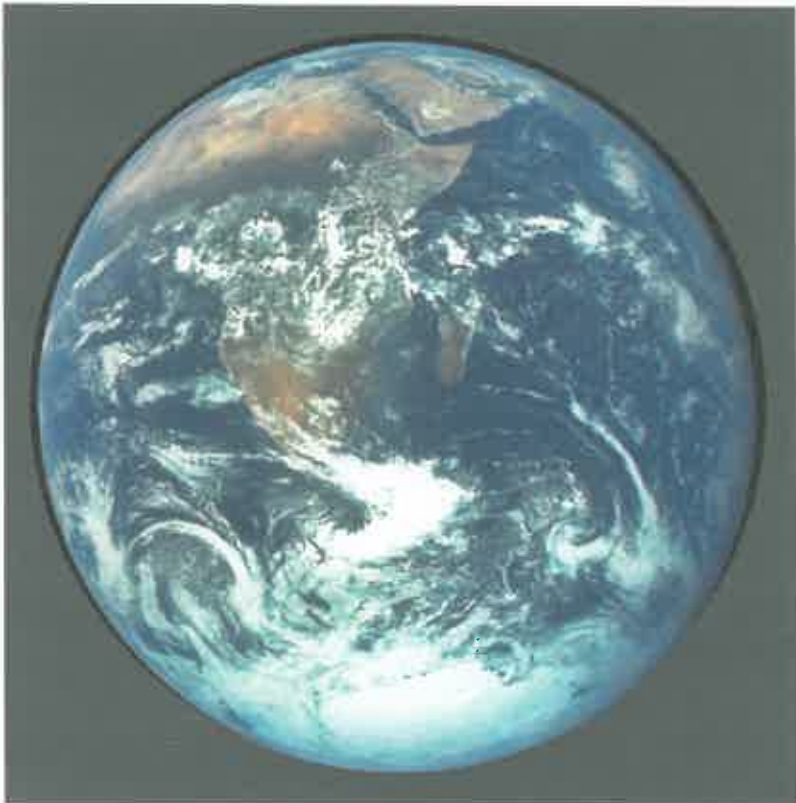
”



제 1 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THE WONDERS OF GOD IN CREATION)



#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움

(THE WONDERS OF GOD IN CREATION)

## ☒ 개 관 ☒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시 9:1).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 도다”(시 111:2).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시 145:10).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세포도 소우주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놀랍게도 질서가 있고 복잡 미묘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펀전(C. H. Spurgeon)은 이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 설계, 크기, 수량, 정교함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신 모든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이상의 신비한 것이 내포되어 있으리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마음을 쏟게 됩니다. 경건한 자연과학자는 자연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귀중한 진리를 캐냅니다.<sup>1</sup>



## ❁ 신묘 막측하게 설계하신 우리의 몸 ❁

(The Wonder of The Human Body)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출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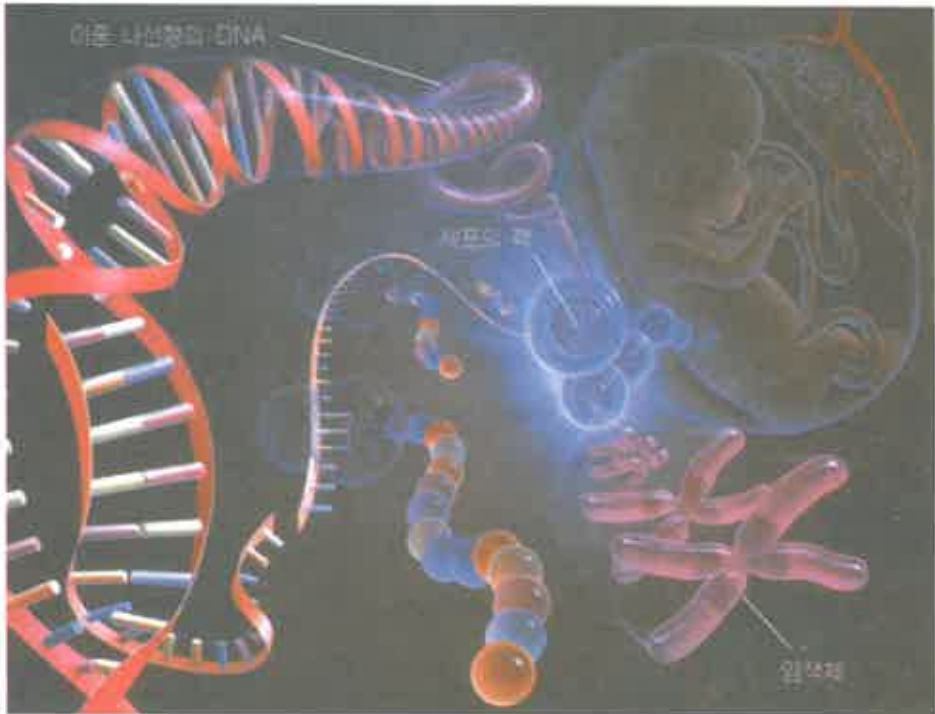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4).

- 생명체의 설계도, DNA  
(DNA, The Blueprint of Life)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몸의 설계도를 현대 과학이 발견하여 이

름을 붙인 **다옥시리보 핵산(Deoxyribo Nucleic Acid)**의 약칭인 **DNA** 조직에 넣어두셨습니다. 모든 세포핵 안에 들어 있는 아주 작은 조직으로 진득진득한 물질인 DNA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체 내의 세포핵 속에 있는 모든 DNA 조각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태양까지 400 번 왕복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DNA에 들어 있는 인체의 모든 유전 정보는 냉장고에서 얼린 각얼음 한 덩어리 만한 부피에 모두 집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인체의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은 보통 100 권 분량의 책과 맞먹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시편139:13)



사람의 몸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닌 신기의 산물입니다. 약 일백 조 개의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그 모든 조직이 협동을 통해, 사람이 먹고, 마시고, 걷고, 달리고, 뛰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맡고,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따위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뇌는 이러한 모든 복잡 미묘한 걸작품의 총 사령부인 셈입니다. 명령이 뇌로부터 내려지고, 이행되어져서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잘 유지됩니다.

수십 억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도 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면이 적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현장에 남긴 그들의 지문이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래에 알려진 유전자 식별법으로는 사람의 머리카락, 혈액, 땀, 침 등에서 사람마다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DNA의 구성물질 중 염기 배열의 분석을 통해 범인을 색출하기도 합니다.

두 부모가 똑같이 생긴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 없이 많은 DNA의 조합을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생각조차 무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70조 분의 1로, 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수치입니다.

### ● 인체의 잠재 능력

(The Potential of The Human Body)

사람의 마음과 뼈와 근육이 신기하게 협동해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업을 이루어 내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6,270 파운드(2,844 kg)의 무거운 짐을 끌어당기는 힘, 42.195 km(약 26 마일)의 마라톤 거리를 평균 시속 43 km(27 마일)의 놀라운 속도, 8 피트(240 cm)를 높이뛰기로 뛰어넘는 기술, 29,000 피트(8,700 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인내심 등.

물론, 인체는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씹으면, 음식이 침과 섞여서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를 통해 전분의 분해가 시작됩니다. 침과 잘 반죽되어 유효제가 발라진 상태처럼 된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딱 알맞은 양의 위산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분해됩니다(이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많은 미식가들이 위궤양에 걸려서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룰 것입니다). 이 음식은 다음 기착지인 작은창자로 넘어가서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되고, 또 다른 영양소들은 혈액 속으로 기민하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큰창자에서는 수분이 흡수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지시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이와 같이 소화되어서, 뼈, 살, 피, 근육, 신경, 머리털, 이, 눈 등 모든 신체 조직에 골고루 전달되어집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영양을 공급받고 새로워질 뿐 아니라, 음식의 일부분은 마지막 한 손가락을 삼키고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어떻게 이 음식들이 인체에서 담당할 역할들을 알게 되는 걸까요?

- 이상을 보는 거룩한 그릇, 눈  
(Sight)

시력은 인체의 놀라운 기능 중의 하나로서, 빛을 정보로 바꾸어서 우리 주변 환경의 색깔과 형태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체를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 속에,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글씨가 보이기까지 시신경을 통해 뇌와 눈을 오가는 수 십억 차례의 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마태복음 6: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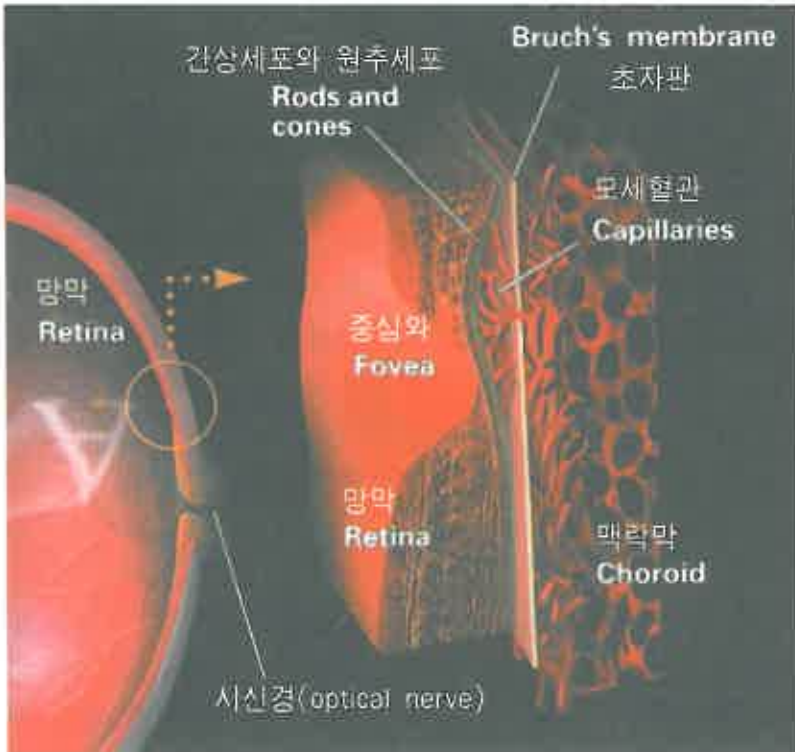


산 과정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고정된 사진기, 움직이는 사진기, 조도계 등이 조합된 것과 같습니다. 이 눈은 초점이 완전 자동으로 조절되고, 광각 렌즈와 줌 렌즈도 구비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완전 칼라를 재생활 수 있습니다.

눈 안에 있는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와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가 감지한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전달받은 뇌는 모든 정보를 직조해서 당신 앞에 있는 장면을 벽걸이 용단처럼 펼쳐 보입니다.<sup>2</sup>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마태복음 3:17)



우리는 두 눈을 통해서 물체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눈은 깊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는 비행기 조종사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는데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눈의 기능들은 아주 단순한 작용처럼 생각되지만, 빛의 명암뿐만 아니라 빛깔까지도 감지하는 육 백만여 개의 원추세포와 약한 빛을 감지하는 수 백만여 개의 간상세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상세포에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로돕신(시홍)이라는 적자색의 색소 단백질 분자가 수백만 개나 들어 있어서 캄캄한 곳에서 물체를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는 물체의 위아래가 뒤바뀐 상으로 나타나는데, 뇌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똑바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환되어 보이게 해 줍니다.

당신이 물체를 보고 나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눈을 떴후에도, 당신은 손을 뻗어서 그 물체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력이 기억력과 협동하여 이 동작이 가능해 집니다. 생물학자들도 이 단순한 작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기한 시각의 모든 과정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과학자들의 몫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이상을 보는 거룩한 그릇(holy grail of vision research)**”이라 일컬음이 지당합니다.

● 4,000여 가지 냄새를 구별하는 코  
(Smell)

보통 사람은 적어도 4,000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00 가지나 구별해낼 능력을 지닌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삼을 일이 못됩니다. 개는 냄새

새 맡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개는 뇌의 3분 1 정도가 후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는 길 잃은 사람을 찾거나 범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개들은 냄새를 맡는데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의 코는 사람이 연구실의 실험을 통해서조차 구별하기 힘든 미미한 냄새도 알아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래로 맡아보지 않은 냄새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독특한 냄새가 뇌에 그렇게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을까요? 어떤 냄새는 침을 흘리게 하고, 또 어떤 냄새를 맡으면 코를 틀어막고 단 한마디로 반응합니다: “웁!”

### ● 진실을 말하는 입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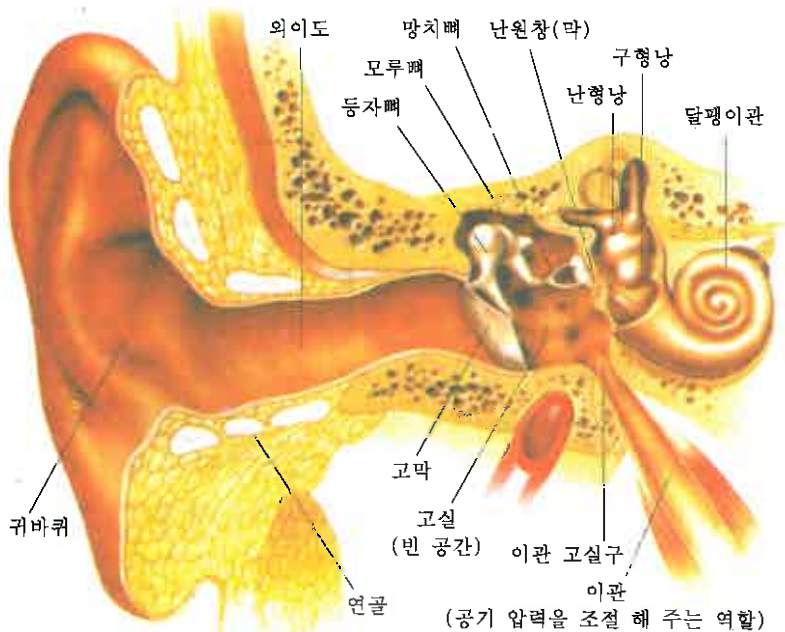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기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말하게 되는 것의 역학 구조를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삶은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의 뇌는 폐에게 공기를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공기가 목구멍에서 후두로 내뿜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단어를 힘주어 말하고 싶어서, 우리 뇌는 해당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성대를 바짝 조이도록 합니다. 성대의 긴장이 풀어지면, 목소리도 낮아집니다. 물론, 입술, 혀, 그리고 턱이 유창한 말과 아름다운 찬송(간절히 원하는 바인)을 부르는데 함께 동작합니다.

● 말씀을 듣는 귀  
(Hearing)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와의 지으신 것이니라”(잠 20:12).

사람의 귀가 어떻게 말을 음파의 형태로 감지하여, 신경 자극으로 바꾸고, 이 자극을 어떻게 뇌에 전달하는지 우리는 적지 않

소리를 공기로 부터 액체로 옮기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의 귀 안에서는 기계적 정확도로써 아주 훌륭하게 해결된다. 사람이 출생할 때 이 소리를 전달하는 고실의 세 개의 잔뼈(등자뼈, 모루뼈, 망치뼈)는 완전히 자란 상태를 갖추고 있다. 이 세 개의 뼈들은 사람의 평생동안 더 이상 자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게 놀랍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음파가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 움직임은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를 거치면서 지렛대 원리에 의해 증폭되어 난원창에 전해져 그 속에 있는 림프액과 기저막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 진동이 청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움직임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의 좌반구에 있는 청각령에 전해져 비로소 소리를 듣고 느끼게 됩니다. 청각 능력을 잃어 보지 않고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코를 고는 남편이 있어도, 아기 엄마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소리를 여과하는 놀라운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그 와중에도 아기 엄마는 다른 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잠을 깹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려고 잠을 깹습니다. 침대에서 나와서, 장난감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의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곳에 그대로 엎어져 있고, 이번에는 아기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아기에게로 달려갑니다. 돌아오면서 마루 바닥에 있는 남편을 보고는 의아해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귀는 또한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속귀에 있는 이 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럽게 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현기증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 출생 선물로 받은 평생 의복, 피부  
(Touch)

당신의 피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피

부는 외부의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으면서, 수분을 밖으로 발산시킵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이 한 두 장의 종이를 들고 있는 지도 감지합니다. 피부는 압력이 얼마나 되는 지를 느끼고, 뜨겁고 추운 온도 차이를 감지합니다. 악수하거나, 입맞추거나 하는 촉감은 우리 일상생활에 긴요한 활력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조직은 피부이며, 우리가 생일 날 선물로 받은 옷이며, 우리가 평생 동안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피부의 무게는 어림잡아 6 파운드(3.2 kg)정도이며, 면적은 약 2 평방 야드(1.67 평방 cm) 정도입니다. 피부는 놀라울 정도의 탄성이 있으며, 백만 개도 더 되는 신경 말단이 있어서 온갖 감각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인체 기계 공학의 걸작, 손  
(The Hand)

손만큼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안에 이러한 모든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 컴퓨터는 틀림없이 사람의 손을 완전하게 복제할 것입니다.

손은 너무나 중요해서 뇌의 일정한 부분이 손을 위해 할당되어 있으며, 손가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특이합니다.

● 우주 내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체, 뇌  
(The Brain)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욥 38:36).

보통 성인의 뇌는 무게가 3 파운드(1.36 kg)입니다. 뇌가 있음으로 우리는 학습이 가능하며(동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동물들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뇌는 지각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정보를 다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과 우리가 획득한 모든 지식은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일철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기에 저장되어 다시 생각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수술 의사는 환자에게 국부 마취를 사용해서 전국 봉으로 뇌의 여러 부분을 터치해서 과거의 의식을 되살려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지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있고, 나의 첫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지금 에테르 같은 마취제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집 거실 안에 있고, 가극 아이디어를 듣고 있어요...”

당신의 뇌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의 모든 경이로움 가운데서, 뇌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름 휴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마음먹고, 재빠르게 그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까요? 목마를 때, 우리는 시원한 물 한 컵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뇌가 손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 컵을 들도록 할까요? 과학자들은 말하기



임신 16주에 낙태된 아기의 발 :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하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혈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정녕히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시편 139:14-19).

를,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전기적인 흐름과 화학물질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작동될까요? 우리가 뇌의 작용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간파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뇌와 몸의 상호 관계는 생물학이 도전할 최종적인 뚝으로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까지도 사람의 뇌의 신비로움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친히 고안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고집스럽게 매번 거절합니다. 사람의 뇌는 어찌나 복잡 미묘한지 세상의 어떤 컴퓨터도 이에 견줄 수

가 없습니다.

에드먼드 볼레스(Edmund Bolles)는 사람의 뇌를 가리켜, “전 우주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복잡한 조직 구조”라고 말했습니다.<sup>3</sup>

미가엘 덴튼 박사(Dr. Michael Denton)는 그의 저서, “진화론: 위기에 처한 이론(Evolution: A Theory in Crisis)”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온갖 현대적인 기술 수단으로 사람의 뇌와 같은 물체를 대충 조립한다 해도 영원이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sup>4</sup>

진화론자인 옥스퍼드대 교수, 로저 펜로스(Roger Penrose)는 1989년에 쓴 저서, “황제의 새로운 생각(The Emperor's New Mind)”에서, 사람의 뇌가 단지 복잡한 컴퓨터라거나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인공 지능)고 말하는 것에 경고를 했습니다: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측정할 수 없는 진리로 인도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컴퓨터가 결코 생각을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sup>5</sup>

과학 분야의 저명한 저술가인 아이작 악시모프(Isaac Asimov)는 진화론자인데, 사람의 뇌의 복잡한 구조에 자극되어, “우리가 알듯이, 3 파운드(1.36 kg) 무게의 사람의 뇌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조직체이다” 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sup>6</sup>

조그마한 사람의 뇌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2 천만 권의 책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도서관이 여러 개 있어도 이만큼의 책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람의 뇌의 복잡 미묘

하고 질서 정연함을 말했습니다. 디영과 블리스(Drs. DeYoung and Bliss)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우주에 있어서 우리의 뇌는 화학 신경학적인 질서와 복잡함의 가장 위대한 응집체이다. 뇌는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이고, 방대한 도서관이고, 멀티 컴퓨터이고, 종합 통신 시스템이다. 이 모든 것이 합쳐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잘 돌아간다. 사람의 뇌의 상세도는 점차 밝혀지고 있고, 뇌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의 기원은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는 뇌의 내부에서 놀라운 목적과 독립성을 보게 된다—모든 부분은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며 뇌는 그 자체로는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존하는 세상의 복잡미묘한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sup>7</sup>

제리 버그만(Jerry Bergman)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평가하기를, 우리의 뇌는 평균적으로, 매일 10,000 가지 정도의 생각과 개념을 거뜰히 처리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이 이보다 훨씬 상회한다.”<sup>8</sup>

- 한계치를 모르는 기억력  
(Memory)

성경학자인 로버트 딕 윌슨(Robert Dick Wilson)은 45 가지

의 고대 언어와 방언을 익혔습니다. 유대인의 암기 숙련가 모임의 사람들은 12 권의 방대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암기했습니다.

아투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는 교향곡의 긴 악보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완벽하게 암기한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울프강 아메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edeus Mozart)는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가 작곡한 유명한 '미제레레의 기도(Miserere)'를 시스틴 합창단(Sistine Choir)이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곡은 그 합창단의 개인 소유여서, 일반인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음악을 듣고 나서, 기억을 되살려 악보를 완전하게 되렸습니다.

1858년, 폴 몰피(Paul Morphy)라는 사람은 눈을 가린 채로 여덟 게임의 장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파리에서 선발된 여덟 명이었습니다. 그의 상대들이 어느 자리에 두었다고 말만해도, 그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동시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말판을 보지 않고 한 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무려 여덟 게임이나 동시에 하다니! 그가 "장기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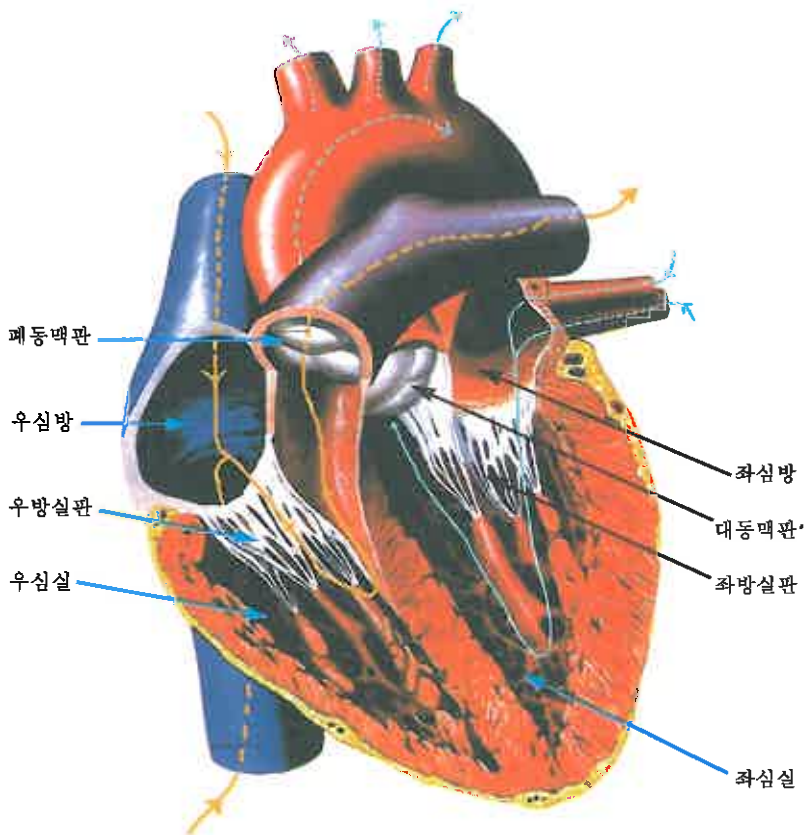
### ●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 형질 (Heredity)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닮아서 얼굴 모습, 머리 색깔과 모양, 골격 구조,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짓는 능력은 어떻게 유전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예술가나 음악가의 예술적 기질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도 실제로 유전이 됩니다.

- 여러 감정 — 두려움, 분노, 슬픔, 절망감  
(Emotions) — (Fear, Anger, Sorrow, Depression)

위기를 느낄 때, 신체는 자율적으로 아드레날린을 필요한 조직에 보냅니다. 신체는 어떻게 감지할까요?

### 심장 내강의 구조와 혈류 방향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heart)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 4:23)

## ● 하루 10만 번 생명 펌프, 심장 (The Circulatory System)

심장은 임신한지 4 주가 되면 뛰기 시작하여, 일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충실하게 동작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평균 100,000 번을 펌프질하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00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쉬지 않고 수리도 없이 동작하기도 합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이 지칠 줄 모르는 기적의 생명 펌프는 분당 5 쿼트(5.7 리터)의 혈액을 펌프질하여, (총연장 9 만여 km(지구 둘레의 약 2 배)나 되는 핏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날라서 처리하며, 체온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70여 년 동안 이 심장은 외부 혈액의 공급 없이 23 억 번을 동작합니다.

(한편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는 산소를 최대한 많이 싣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중심이 오목한 원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으며, 또한 상처로 인해 피가 나게 되면 즉시 굳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입니까?)

그리고 심장의 근육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不隨意筋)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어십니다.) — (괄호 부분 역자 주)

## ● 번식작용의 신비 (The Wonders Reproduction)

임신 과정과 생명의 탄생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몸은 알 파벳 소문자 “i”의 위에 있는 점만큼 작은 크기의 수정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점안에 우리 신체가 앞으로 지니게 되는 형질의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턱 모양, 눈동자나 머리 색깔, 신체 크기, 성별, 뇌의 용적, 목소리, 전체 생김새 등 모든 것이! 이 수정란이 점점 커지면서, 세포들은 다른 모양으로 변화됩니다. 살, 뼈, 근육, 신경, 힘줄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명 공학자들이 당황하는 것은, 어떤 세포들이 신장 부분이 될 것인지 알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을 신장이 될 부분으로 옮겨서 세포가 증식됩니다. 어떤 세포들은 놀랍게도 정확한 부분에서 폐로 형성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세포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은 정확한 부분, 정확한 시간에 신체의 기관과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형성됩니다.

세포의 증식, 자리 배치, 시간 계산 등,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4 주가 되면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3 개월쯤 되면 뇌가 형성됩니다. 만 9 개월이 되면 아기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과정에서 사소한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산모의 신체는 이러한 이상을 알게 되는 듯하며, 태아에 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자궁 안에서 생명체인 태아가 생겨나는 것을 여전히 신비스러운 일임을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생물학 교과서는 수태에서 임신과 분만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무엇이 일어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와 왜에 관한 신비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 정신과 육체의 관계

(Relation Between the Mental and Physical)

현대 의학은 정신과 육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위궤양을 일으킵니다. 공격적이거나, 성취 지향적이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더 여유를 갖는 사람보다 심장 마비에 걸리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죄로 인해 병에 걸리기도 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정신 신체 의학 (Psychosomatic medicine)은 병을 정신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의 상관 관계에서 연구하는 의학입니다.

## ● 신체의 치유 능력

(The Body's Healing Power)

왜 의사 선생님이 아스피린 두 알을 환자에게 주고 아침에 상태를 알려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대부분의 가벼운 병세는 호전됩니다. 신체는 열병이나, 바이러스, 기타 전염병과 싸울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지니고,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합니다.

신체의 면역 체계는 한층 뛰어납니다. 질병에 대처하는 인간의 효율적이고 복잡한 방어 체계는 기적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즉시, 신체는 말 그대로 그 침입자를 격퇴하기 위한 행동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세포들, 혈액, 그리고 신체 조직은 사람이 전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도 즉시 비상 체제를 갖추십시오. 해로운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죽이던가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 그 질병에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정상이 아닐 때, 신체가 어떤 식으로 경고 신호를 바깥으로 내보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예를 들면, 열, 염증, 통증, 출혈 등.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비상 신호만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병원균을 격퇴하는 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체가 자신의 신체 조직인지, 이식된 조직인지 알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식된 조직에 대해 순응 반응을 할지, 거부 반응을 할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 ● 영과 혼

(The Spirit and Soul)

사람은 영, 혼, 그리고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살전 5:23).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혼이 떠날 때, 몸도 죽게 됩니다.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혼은 주변 것들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며, 여러 감정들의 소재지입니다.

성경은 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적인 지각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분리되어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되는 영들도 지각하고, 말하고,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모든 창조물에 기적적인 설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신기한 설계가 있을진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요?



동방박사와 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 ☒ 별 반짝이는 우주 ☒

(The Starry Heaven)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3-4).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

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 19:1-4).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데도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시 147:4-5).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암 5:8).

### ● 광대한 우주

(The Magnificent Universe)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누가 모든 천체들이 저마다 운동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이 공간을 만드셨는지 생각만 해도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스펠전은 다음과 같이 천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창조의 어느 부분도 사람의 생각이 미치는 그 이상의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체 부분은 특별히 풍부한 영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sup>10</sup>

만일 일 천 마일을 여행하는 경비가 일 페니라면, 달까지 여행하는 데는 단지 2.38 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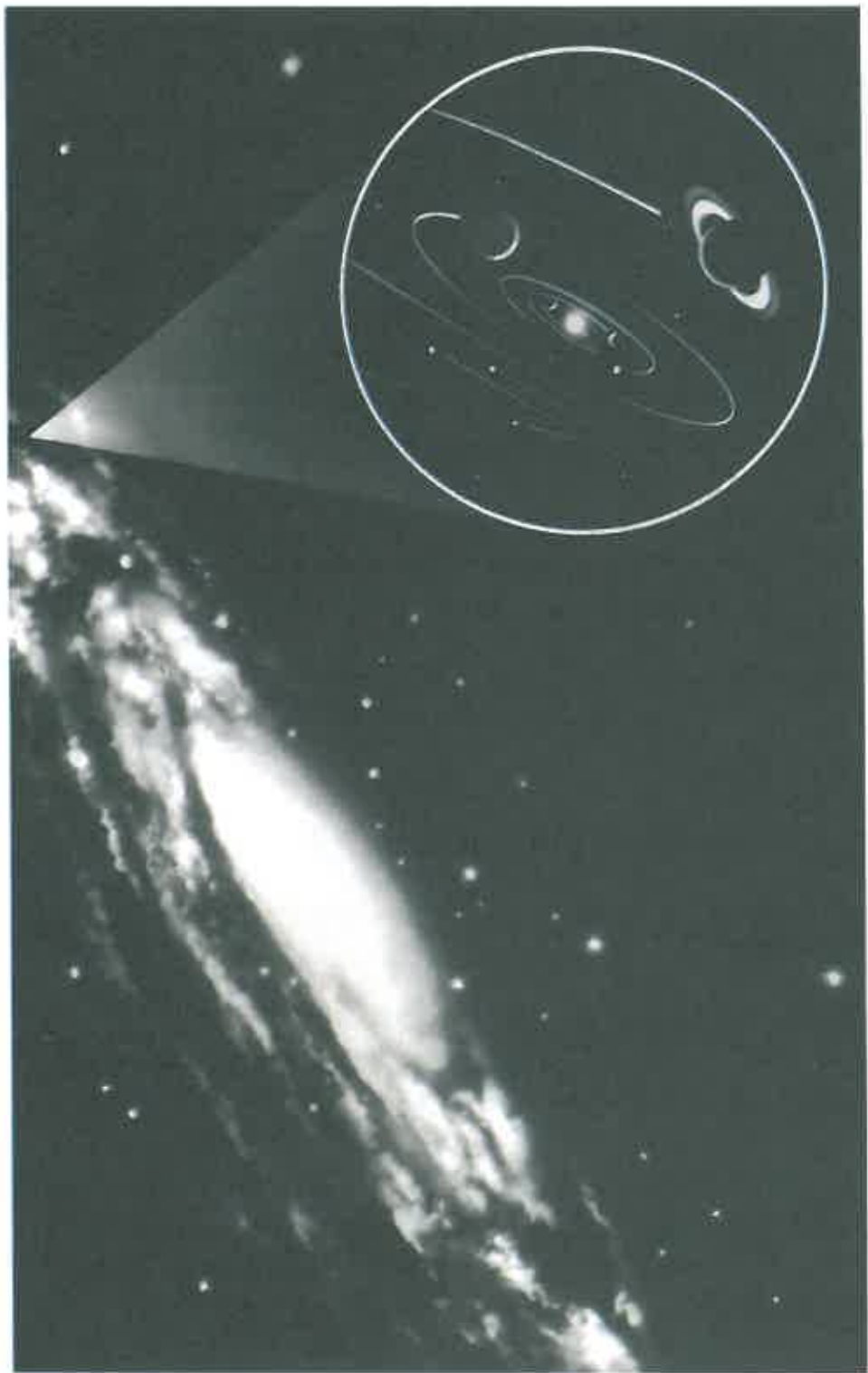
까지 가려면, 편도 경비가 930 달러(약 110 만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 가는 경비는 —놀라지 마십시오— 2억 6천 달러(약 3,120 억 원)가 들 것입니다.

육안으로, 우리는 약 5,000 개의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망원경으로는 200 만 개가 육안에 들어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는 수 십억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진 경(Sir James Jeans)은 말하기를, “아마도 하늘에는 세상의 모든 바다의 모래만큼의 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은 모두 다 한 곳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물도 없는 우주의 바다에서 외롭게 떠 있는 등대선과 같은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00 억 광년이나 떨어진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1 광년(light year, 光年)이란 빛이 1 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이 1 초에 지구 둘레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거리인 30 만 킬로미터(186,282 마일)를 가니까, 약 10 조 킬로미터(6조 마일)나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현재의 사건이 아닌 지나간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리온자리(Orion)에 있는 리겔(Rigel)이란 별을 보는 것은 540년 전의 상태를 보는 셈이 됩니다.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540년이나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하수(The Galaxies)는 우리에게서 아주 아득한 거리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들을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에 관한 한, 우리의 지구는 전 우주에서 볼 때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목성만 해도 지구 크기의 약 1,000 배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나 큼니다.

은하수(The Milky Way)에는 3억 개 정도의 태양이 있습니다. 어떤 별들은 우리가 보는 태양의 5억 배나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일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각 은하계는 또 일 천억 개의 별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Einstein)은 우리가 가장 큰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공간(Theoretical space)”의 십 억 분의 일도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 속으로 내던져지면, 다른 어떤 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별들은 평균적으로 수 광년이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들까지도 은하계가 신비스러운 전체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천문학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소우주에서부터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태양계와 은하계 중심 둘레로 운동하는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천문학자는 복잡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불러일으키는 경외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는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으며, 신비스럽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경이적으로 정확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학 구조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비 중의 신비!  
기막힌 경이로움!  
이보다 큰 경이로움이 있을까?  
별 반짝이는 이 넓은 우주를 지으신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셨다니.

최근 어떤 과학 사설 기사에서 말하기를,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확률은 미세한 화살이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가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있는 직경 1 밀리미터의 중심을 맞힐 확률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같은 예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럴 확률은 그보다 무한대로 낮습니다.

● 생명이 태동하는 별, 지구  
(Planet Earth)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시 115:16).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 45:18).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19-20).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심히 좋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친히 설계하셨기에, 이 지구는 사람이 거처하기에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우며, 안락하고,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우주 전체에서 다른 어떤 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 - 지구와 태양간의 거리(The Distance From The Sun)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9,300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우리 모두는 타 죽거나 얼어죽게 됩니다.

#### - 지구의 크기(The Size of The Earth)

지구 자체만 보더라도 아주 딱 맞는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다른 크기라면, 대기권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얇아져서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 - 지구의 경사도(The Tilt of The Earth)

지구의 경사도(23.5 도)로 인해 사계절이 생겨서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대부분의 지구 표면은 삭막한 사하라 사막같이 될 것입니다.

#### - 지구의 회전운동(The Earth's Rotation)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은 결코 우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

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 내에서 딱 알맞은 자전 속도로 조율되어 있어서, 태양의 열기를 일정하게 소모하고 바람과 해류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 - 대기(The Atmosphere)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그 구성 물질이나 밀도에 있어서 사람의 필요에 알맞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가 21%, 질소가 78%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맞은 공기 때문에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 - 오존층(The Ozone Layer)

하나님께서서는 오존층을 설계하셔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해 주십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유해한 화학물질을 방출해서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무지와 죄악이 일으킨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 - 물(Water)

물!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냇물, 호수, 바다 등 지구의 5분의 4를 물로 채워주셨습니다. 현대 과학은 다른 어떤 행성에도 물이 액체 형태로 이 같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곳이 더 이상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주된 구성 성분입니다. 물은 세탁을 위한 용해제로, 식품의 냉동제로, 발전소의 원동력으로, 기타 그 쓰임새는

무한합니다.

다른 물질과는 특이하게,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더 낮아져서 얼음 덩어리가 물위에 뜨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성질로 인해서, 겨울에 호수가 얼 때, 호수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음 층은 추운 바깥 공기를 차단하게 되어, 얼음이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되면 더 이상 얼지 않게 됩니다. 만일 다른 물질처럼, 물도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무거우면 호수는 바닥부터 얼게 되어 모든 고기가 냉동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얼음은 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들같이 굳어지고 해면(the surface of the deep)이 어느니라”(욥 38:29-30).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스투어트 네빈스(Stuart Nevins)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나리자가 화폭에서 실제 사람으로 변신했다고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sup>11</sup>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 육지에 사는 생명체의 신비 ☒  
(WONDERS ON THE LAND)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 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시 148:10,13).

● 새끼를 훈련시키는 사자  
(The Lion)

동물의 왕, 사자는 자기 새끼를 길들이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합니다. 암사자와 같이, 수사자는 새끼들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같이 장난도 칩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중에 부성 본능이 뚜렷

한 유일한 동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  
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사 31:4상).

● 다재다능한 오리너구리  
(The Platypus)

이상하게 생긴 주둥이를 가진 오리너구리는 뱀과 같이 독을  
지니고 있으며, 새처럼 알을 낳고, 비버처럼 헤엄도 치며, 오소리  
처럼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아주 다재다능한 동물입니다.



- 어린 새끼를 함께 돌보는 기린 가족

(The Giraffe)

갓 태어난 기린은 전체 기린 떼의 다정한 돌봄을 받습니다. 비록 조금 성장한 기린들이 각각 하나씩 특별한 돌봄을 맡을 책임이 있는데도 집단적으로 돌봅니다.<sup>12</sup>

- 암컷의 통제를 따르는 샤모아 산양

(The Chamois)

남유럽에 서식하는 샤모아 산양은 20~30 마리씩 떼를 지어 삽니다. 어떤 경우는 100 마리나 떼를 지어 삽니다. 특이하게도 이들 무리는 한 마리의 노련한 암양의 통제를 따릅니다.

- 어떤 곳에도 달라붙는 도마뱀붙이(합개)

(The Gecko)

도마뱀붙이(레 11:30 절에 “합개”로 기록되어 있음 —역주)라는 동물의 끈끈한 발가락은 동물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최근에 와서야 그 신비가 벗겨졌습니다. 망으로 된 그들의 발가락은 빨판처럼 생긴 얇은 피부를 지니고 있어서, 발가락이 어떤 물체에 닿더라도 모양과 형태가 변형되어서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돌기가 있어서 아무리 잡기 어려운 물체라도 꼭 잡을 수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이 도마뱀붙이의 피부는 주름이 쳐 있는데, 뻘었다 오므렸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과 지지하고 있는 물체 표면 사이가 진공 상태가 되게 하여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sup>13</sup>

### ● 귀소 본능을 지닌 집 고양이 (The Domestic Cat)

사자나 오리너구리처럼 놀라운 천부적인 특성을 지닌 동물은 야생 동물이나 희귀한 동물들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민요에도 나오듯이, “그는 갈 사람이겠지만, 고양이는 돌아올 것이라네.”

어떤 고양이는 8 년을 떠나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위스콘신, 밴크로프트(Bancroft)에 사는 어떤 사람은 현관 앞에서 고양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긴 꼬리를 지닌, 큰 회색 수코양이가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피며 그르렁거리더니, 주인의 안락의자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은 저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8 년 전에 고양이와 찍었던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아무리 봐도 틀림없는, 8년 전의 그 고양이였습니다.<sup>15</sup>

### ● 출산 일을 조절하는 노루 (The Roe Deer)

노루(The Roe Deer)가 7, 8 월에 수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게 되어,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보다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춰지고, 태아는 12 월이 되어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 새끼는 임신 9 개월 후인, 5 월에 태어나게



되어,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이 많고, 은신처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sup>14</sup>

“암사슴(The Deer)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욥 39:1-2).

노루와 고라니는 사슴과에 속한 동물이며 사슴과에는 38종류가 있다 한반도에는 백두산사슴, 대륙사슴, 큰노루, 사향노루, 고라니, 노루 6종이 살고 있다. 노루와 사슴은 사촌간 이다.







## ❑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신비 ❑

(WONDERS IN THE SEA)

### ● 가장 큰 몸집을 지닌 긴수염 고래

(The Blue Whale)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이 동물, 긴수염 고래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덤프트럭 3 대만큼 크고, 혼다 시빅스(Honda Civics)같은 경승용차보다 110 배나 무거우며, 폭스바겐 비틀(Volkswagen Beetle) 만한 크기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만한 몸집을 유



지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까? 하루에 4 톤의 크릴(새우 종류)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는 3백 만 칼로리의 영양가! 새끼 긴수염 고래는 하루에 100 갤런(378 리터)의 우유를 먹어 치운다. 이 긴수염 고래가 수면 위로 몸을 내밀 때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이 숨쉴 때 보다 엄청나게 많은 공기를 들이킨다. 긴수염 고래가 뿜어대는 물줄기는 전봇대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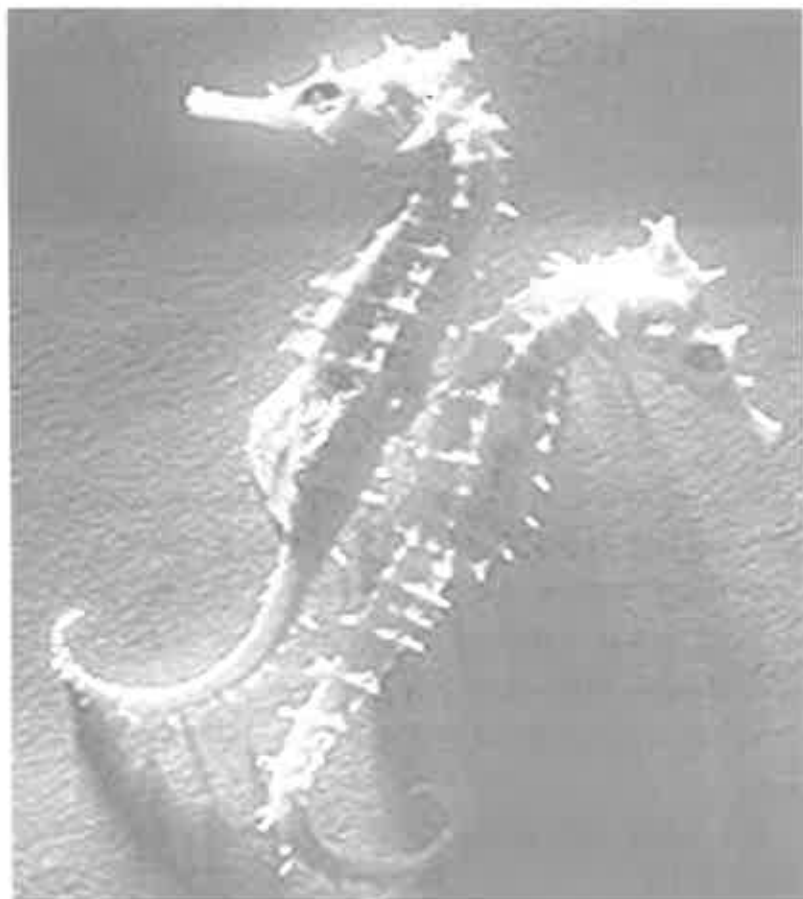
(긴수염 고래의 입에는 이빨 대신에 많은 수염이 나 있습니다. 이 수염은 먹이를 먹을 때에 아주 편리하게 씹습니다. 긴수염 고래는 먹이인 크릴(kril)이나 새우 같은 플랑크톤 성의 작은 갑각류를 바닷물과 함께 들이마시고, 물은 수염을 통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입 속에는 플랑크톤과 새우들만 남게 됩니다 — 역주).

### ● 돌고래의 이웃 사랑 (The Dolphin)

암컷 돌고래 무리는 새끼를 가진 돌고래를 둘러싸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며, 그 어미 돌고래가 천천히 수영하며 새끼를 낳도록 해 줍니다.

● 수컷이 임신하는 해마(海馬)  
(The Sea Horse)

해마는 동물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컷이 “임신”을 합니다. 몇 마리의 암컷이 수컷의 알주머니에 알을 낳으면, 알이 자라서 어린 새끼가 되고, 6~8 주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어린 새끼 해마가 수중으로 나오게 됩니다.<sup>17</sup>





## ❁ 공중에 나는 생명체의 신비 ❁

(WONDERS IN THE AIR)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이로운 피조물 중에 새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수많은 무리, 색깔, 그리고 노래 소리에 있어서, 새들에게 필적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세계에서 우아하고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진 나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맑은 날이면, 그 우아한 날개를 뿔내는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날아다니는 이 작은 것들이 지닌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 피리새의 건축 기술  
(The Weaver Bird)

집짓기의 명수인 피리새는 기막힌 기술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 새는 끈으로 묶기도 하고, 망을 짜기도 하고, 여러 재료를 합쳐서 튼튼한 매듭을 만들기도 하고, 줄로 매듭을 엮어서 나무 가지에 그 걸작품을 단단하게 매달고, 구름다리로 연결합니다.

● 철새의 이동 본능  
(The Migratory Instinct)

철새의 이동 본능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철새들은 그들이 이동할 적당한 목적지—보금자리를 만들고, 먹이가 많

고, 겨울을 지내기가 알맞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도요새 종류인 샌드파이퍼(sandpiper)라는 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 9,000 마일(약 15,000 킬로미터)이나 긴 여행을 합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일 년에 두 번 북극과 남극을 오갑니다. 11,000 마일(약 17,700 킬로미터)을 나침반이나 지도도 없이.

철새들은 타고난 항법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철새들에게는 도중에 표류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류 학자들이 철새를 낯선 환경에 두는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식별력이 혼동되게 해 보았지만 그들은 실수 없이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렘 8:7).

### ● 어린 휘파람새의 이동 능력 (The Lesser Whitethroat Warbler)

휘파람 소리는 이 작은 친구의 주된 자랑거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새의 철에 따라 이동하는 본능은 참 놀랍습니다. 독일에서 여름을 보낸 후에, 이 새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새는 어미 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린 것들을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에 어린 휘파람새들은 수 천 마일을 날아가서 낯선 미지의 땅을 지나 어미 새를 따라잡으려고 고생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고도와 위도와 별빛을 고려하여 위치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위치탐지 체계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기막히게 정확성을 갖

춘 본능으로, 그들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sup>18</sup>

### ● 달 염분 체계를 갖춘 갈매기 (The Sea Gull)

우주의 경이로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에나 있는 갈매기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어 치우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생태계의 청소부 중의 하나인 이 새는 물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여러 곳에서도 살아갑니다.

바다를 횡단해본 사람은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오면서, 가끔씩 사람이 던지는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곳에 갈매기들이 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육지나 맑은 냇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갈매기가 그렇게 외딴 장소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의문 거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갈매기는 냇물이 있는 육지로부터 수 천 마일을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마실까요? 만일 그들이 짠 바닷물을 마신다면, 수명이 아주 짧아집니다. 하여튼 갈매기들은 물을 먹어야 합니다.

해답은 아주 기이합니다. 그곳에 있는 갈매기들에게는 마실 물이라곤 바닷물밖에 없기 때문에 짠물을 먹기는 합니다. 그러나 갈매기가 마신 소금물은 놀라운 달 염분 체계를 갖춘 여과 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소금 성분이 분리되어 갈매기의 눈에서 눈물로 배출됩니다. 소금기 없는 물이 식도를 통해 들어가 갈매기 몸 안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나 사람이 흉내내려면 적잖은 비용이 드는 기이한 방법으로!

● 하나님이 알려주신 새들의 방법 대책  
(Who Taught the Bird?)

남아프리카에서 한 사냥꾼이 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독사 뱀이 나무위로 기어올라가서 새의 둥지 쪽  
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새는 잠깐 동안 둥지를 떠나더니만,  
앞이 무성한 가지를 물고 와서 둥지 위에 엮갈려 놓았습니다. “뱀  
은 몸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  
르르 미끄러져서 둥지가 있는 나무 가지까지 갔습니다. 일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더니만, 갑자기 치명타라도 받은 듯 머리를 움



“슬기로운 아버지” 어린이전도의집 권 (제공(미션하우스 부설))



츠리고, 뒤로 물러나서 몸부림치며 급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야 이 사냥꾼은 알게 되었는데, 그 나무 가지는 뱀에게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뭇잎의 모양과 냄새로 인해 뱀은 퇴각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sup>19</sup>

여러분은 날개가 부러진 듯한 행동을 하는 어미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몸을 쭈그리고 어린 새들이 있는 둥지로 기어오를 때, 어미 새는 새끼들을 지체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미 새는 땅에 내려와서 한 두 발짝 뛰고 나서, 마치 날개가 부러진 듯한 행동으로, 종종걸음을 치며, 고양이를 유혹하여 둥지가 있는 나무에서 점점 도망잡니다. 이를 알 리 없는 멍청한 고양이는 계속 그 어미 새를 쫓아잡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그 고양이는 둥지에서 멀리 떼 놓으려는 어미 새의 전술에 말려들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고양이는 종종걸음 치는 어미 새를 계속 쫓아잡니다. 누가 이길까요?

### ● 갈매기들의 조개 식사 (Clam Chowder)

필자가 어릴 때에, 매사추세츠, 브루스터 해변(Brewster Beach)에 있는 친구 집을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 곳은 썰물 때면 모래사장이 1 마일(1.6 킬로미터)이나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후에 모래를 뒤져서 대합조개랑, 커다란 쌍각조개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갈매기들을 보면서 넋을 잃곤 했습니다. 갈매기들은 대합조개가 모래 표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높아서 아마 그들은 대합조개가 뿜어내는 조그마한 공기 방울을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급강하하는 폭격기같이 공습하여 부리로 조개를 정확하게 낚아채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오르곤 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합조개는 아주 단단하게 껍질을 단고 있습니다. 갈매기가 어떻게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맛있는 조갯살을 먹을 수 있을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수 없이 이 과업을 해낼 정도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영리한 갈매기는 조개를 떨어뜨려서 날개로 잡고, 아래로 중력의 힘으로 떨어뜨립니다. 대합조개는 모래 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깨어져 껍질이 열립니다. 갈매기는 날개를 펴고 단숨에 내려와 조갯살을 꺼내 물고 날아가서 조개 식사를 즐깁니다.

● 뛰어난 비행술을 지닌 벌새  
(The Hummingbird)

날갯짓을 빨리 하여 벌 소리를 내는 벌새는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물에 수직으로 다이빙하기도 하고, 앞뒤로 나는 것은 물론이고, 위아래로 날기도 하고, 또 옆으로 날기도 하고, 심지어 포식자를 만날 때면, 몸을 거꾸로 뒤집어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날갯짓을 멈추면 하늘에 떠 있지 못합니다. 작은 벌새는 다른 새들보다 날갯짓을 빨리 합니다(무려 초당 70~80 회 — 역주). 이 새의 심장 박동 수는 1 분에 무려 126 회나 됩니다. 몸무게는 대부분 1 온스(28.35 그램)를 넘지 못하며, 어떤 벌새는 심지어 2 그램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새의 뇌는 다른 어떤 새보다 작을지라도, 가장 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벌새는 계절을 나기 위해 이동할 때, 멕시코만을 넘어서 500 마일을 논스톱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단 1 그램을 소모하면서 20 시간 동안 평균 시속 25 마일로 (40 킬로미터)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놀라운 연료 효율입니다.

● 물을 길어 나르는 모래 뇌조 (雷鳥)

(The Sand Grouse)

모래 뇌조는 북반구에 사는 꿩 비슷한 들새이며, 나뫼(Namib) 사막에 알을 낳는데, 그 곳의 온도가 어떤 때는 섭씨 77 도(화씨 170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새는 목을 펴덕거리며 바람을 일으켜 쪼는 듯한 더위를 식힙니다. 더 놀라운 일은 수컷이 어린 새끼를 위해 매일 물을 날라 옵니다. 매일 아침 수컷은 물이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많은 적들이 물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새들 대부분은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물 수 있지만, 그 수컷은 가슴 깃털에 물이 흠뻑 젖도록 좀더 오래 머물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깃털을 어린 새끼들에게 물을 날라 줄 수 있도록 아주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때는 50 마일이나 먼 거리에서도 물을 날개 속에 가득 날라 올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새끼에게 도착하자마자, 또 어디에서 물을 길러 올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sup>20</sup>

● 빨간 벼슬 딱따구리의 뱀 퇴치법

(The Red-cockaded Woodpecker)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에 있는 소나무 숲에 사는 빨간 벼슬 딱따구리들은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번갯불에 탄 죽은 나무에다 짓지 않고 살아 있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듭니다. 이들은 이상하게도 나무 줄기 아래 부분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 나무들은 너무 딱딱해서 몇 마리가 합동으로 만들어도 2 년이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란 송진액이 구멍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딱따구리는 구멍 위 아래로 파놓은 홈으로 이 송진 액을 부리로 집어넣습니다. 보금자리 통로에 발라진 이 노란 송진은 어린 새끼들을 기르는 데 결정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제 아무리 나무 타기 명수이며, 틈만 나면 새알을 훔쳐대는 방

울뱀이 딱따구리의 보금자리로 접근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딱따구리의 둥지가 나무 줄기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방울뱀은 아주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장벽이 있는데— 뱀은 송진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뱀이 구멍에 가까이 접근하다가, 몸을 갑자기 활처럼 움추리고 땅에 곤두박질 치고, 뽕무늬를 빼며 달아납니다.<sup>21</sup>

●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박새  
(The Titmouse)

이 박새는 추위보다 배고픔을 더 못 견디는데, 24 시간 동안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26). 박새는 이 은혜로우신 약속에 의해, 내일 먹을 것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



지 않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는 땅과 하늘, 그리고 온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 군주왕나비의 귀소 본능  
(The Monarch Butterfly)

이 군주왕나비를 단지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나비는 멕시코의 중앙에 있는 고원에 있는 전나무에서 겨울을 지내고, 더 적합한 환경을 찾아서 해마다 북쪽 지방으로 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긴 여행 동안에 이 나비들은 중간에 쉬면서 인주솜풀(milkweed)이란 풀숲에 알을 낳고 가게 되며,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새로운 세대의 어린 나비는 그들이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멕시코 중앙 고원으로 날아갑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세상에 나온 이후로 이 새로운 세대의 나비들은 어미 나비와 접촉한 일이 없으며, 이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후손은 그들의 조상이 살던 고향으로 실수 없이 잘 찾아갑니다.

● 자기 체중의 50 배를 나르는 개미  
(The Ant)

수캐미와 여왕개미는 교미를 위해 둥지에서 나와 공중에 날아올라 결혼비행을 하며, 어떤 개미는 무려 15~20 년을 삽니다. 개미는 시력이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냄새, 맛, 그리고 촉각을 사용하여 생활을 합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 배나 되

는 것도 나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힘으로 자동차 3 대를 동시에 끄는 힘과 같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

● 다른 벌레의 몸에 알을 낳는 말벌  
(The Ichneumon Wasp)

이 말벌은 다른 곤충 애벌레의 지방층에 산란관을 주입합니다. 아무리 잘 숨는 송충이도, 아무리 작은 이 같은 벌레도 이 말벌에게서 숨지 못합니다. 이 말벌의 알이 서식할 다른 어떤 숙주가 없으면, 심지어 번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긴 산란관을 가진 말벌은 나무 가지 속에 묻혀 있는 다른 애벌레도 찾아냅니다. 이 말벌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굴뚝이를 찾아내서 그 애벌레의 몸 안에 직접 자신의 알을 찔러 넣습니다. 적당한 온기가 있고, 별다른 위험도 없고, 살아 있는 영양가 덩어리 안에서, 이 말벌의 알이 유충이 될 때까지만 기생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벌은 무례하게 숙주의 피부 지방층에만 살짝 침투할 뿐, 이 숙주에게 치명적인 영향은 가하지 않습니다.<sup>2</sup>

집을 짓는 호리병말벌





진딧물로 부터 당분을 얻어 먹고 있는 개미

### ❁ 기타 경이로움 ❁ (OTHER WONDERS)

-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들  
(The Interdependence of Things)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은 다른 유기체들 간에 서로 연관되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공생하며 살아가거나, 반대로 기생하며 살아가는 “생태계 (eco-system)”의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우측/ 진딧물을 먹어 치우는 무당벌레.



좌측/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당벌레를 공격하고 있다.

**말미잘**은 혼자 살아가는 **계**에 붙어살며 독성을 가진 촉수로 계의 보호 역할을 합니다. 한편 계는 말미잘이 영양분이 있는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며 대신 **진딧물**의 몸에서 나오는 꿀즙을 얻습니다.

**백로**는 **코뿔소** 등을 해로 이용하면서 **코뿔소** 등에 붙은 **진드기**를 제거해주며, **백로**는 **코뿔소**에게 잡아먹힐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말벌**은 **지렁이** 몸 피부 속에 알을 낳기도 하는데, 이 알이 부화된 후, 작은 **말벌**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지렁이**를 먹으면서 기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먹이 사슬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사과나무나 원두콩을 망쳐 놓는 **진딧물**을 먹고 삽니다. 이 **고마운 곤충**들이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덕분에 수확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꿀벌**들은 과수와 식물들이 **가루받이**를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중국 모택동은 한 때 참새 때문에 골치를 앓다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주민을 동원했습니다. 온 주민들은 팽과리를 치면서, 겹에 질린 새들이 공중을 날다가 지쳐서 땅에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참새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자, 이번에는 해충들이 극성을 부려서 작물을 온통 망쳐놓았고 나무 꺾질도 마구 값아 놓았습니다. 참새는 더 이상 성가시거나 쓸모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참새 소탕을 그만 두도록 했습니다. 모택동은 생태계에 있는 먹이사슬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sup>23</sup>

개미나 흰개미들도 흙을 뒤집고, 공기가 통하도록 하여, 배수되도록 하며,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이 조그마한 부지런한 농부들은 씨앗을 퍼뜨리고, 작은 동물 시체의 90% 를 먹어 치우는 청소부입니다.

병정개미(polyergus ant)는 싸움은 잘하지만,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개미를 노예로 잡아서 먹이도 구해 오도록 하며 그들에게 일도 시킵니다.

● 물속으로 날아다니는 검은지빠귀  
(The Water Ouzel)



우리들 대부분은 이 놀라운 검은지빠귀라는 새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도 하이 시에라스(High Sierras)에서 하이킹 하던 중 그 새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미심쩍었을

것입니다. 그 새는 아주 작지만, 다른 새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새는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 속으로 날아다니며, 개울물 바닥을 걸어 다니기도 하며 먹이를 구하고, 배를 채우고 나면, 멀리 들판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 ● 배우자 없이 번식하는 처녀 생식

(Virgin Birth)

어떤 벌들은 배우자 없이 자손을 낳습니다. 이 같은 번식을 가리켜 단성생식(單性生殖), 또는 처녀생식(處女生殖)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 세계에 이 같은 예외 법칙을 만드셨는데, 진화론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논란거리입니다. 만일 단성(單性)으로 번식된 어떤 꿀벌들이 자라서 양성(兩性) 생식으로 번식하게 될진대, 어찌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초자연적인 출산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 ● 벌꿀이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Well-traveled Honey)

1 파운드(454 그램)의 토끼풀 벌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한 마리 꿀벌은 56,000 개의 토끼풀 꽃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토끼풀 꽃 하나에는 60 개 정도의 관이 있으므로, 이 꿀벌은 330 만 번이나 꽃 대롱에서 꿀을 빨아 올려야 합니다. 또한 이 꿀벌은 그 화밀(花蜜)을 얻기 위해 8 마일(13 킬로미터)이나 날아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벌꿀이 놓여지기까지, 꿀벌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닌 거리와 애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 꿀벌들의 냉방장치  
(Busy Bees)

꿀벌들은 집의 내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밀랍이 녹게 되고, 벌집 속에 있는 알도 죽게 되고, 집도 뚫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때 벌들은 구조대 같이 벌집 입구에 편을 이

냉방장치 : 애벌레와 어린벌을 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온도를 조절하는 말벌. 고도의 기하학적으로 지어진 벌집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안전성은 항공기 제작에 도입되었다. 이 지능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다.



루어 집결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여 내부 온도를 식힙니다. 이들은 바깥 온도가 섭씨 15.5 도(화씨 60 도)가 될 때에도 벌집 내부 온도를 섭씨 34.4 도(화씨 94 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온도 조절 능력은 현대의 에어컨 시설을 무색하게 합니다. 더구나 벌의 뇌는 핀의 폭지 만한 크기인데 말입니다.

● 피조물에게 주신 방호장비  
(Armor)

어떤 동물은 갑옷을 지니고 있거나 다른 방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마딜로(armadillo)는 남미에 서식하는 포유동물로, 좀처럼 찢리지 않는 ‘딱딱한 판’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호저나 고슴도치도 ‘뾰뾰한 털’로 자기 보호를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개들도 덤비다가 혼쭐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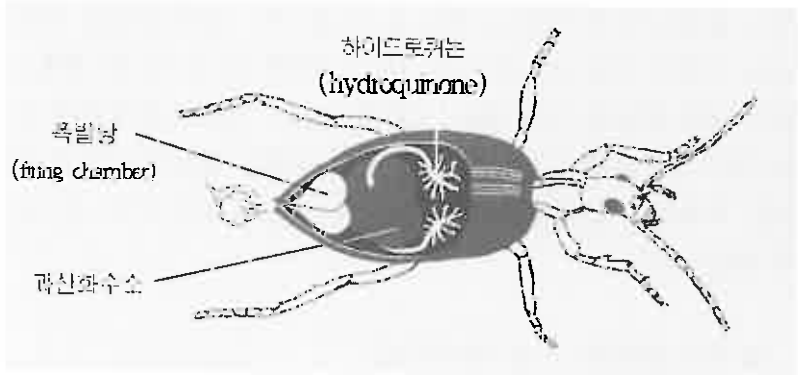
거북이들도 ‘딱딱한 갑판’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위험을 잘 모면합니다.

악어들은 ‘딱딱한 가죽’을 지닌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것입니다.

스컹크도 ‘고약한 냄새’로 자기 보호 수단을 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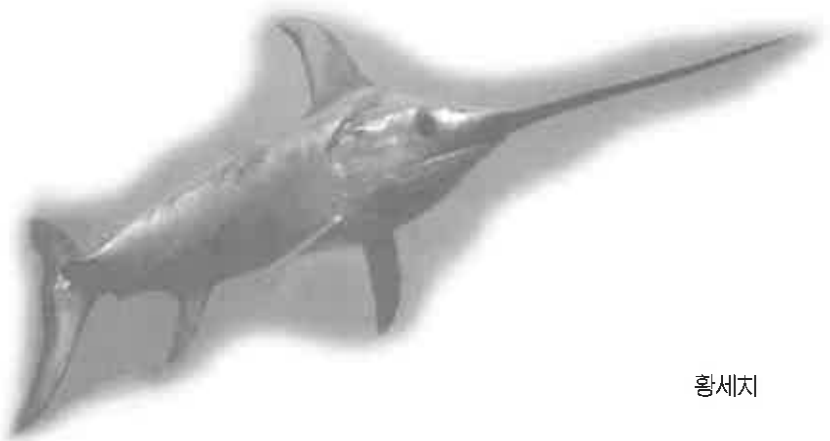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장만해 주신 무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칼, 물총, 심지어 폭탄도… 이러한 것들은 예리한 발톱, 이빨, 뿔, 독소, 그리고 화학적인 분비물 등 여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폭격수 딱정벌레(bombardier beetle)는 뒷부분에 있는 두



개의 주머니에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포식자를 만나면,이 두 주머니에서 각각 뿜어낸 물질들(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이 폭발낭에서 다른 두 가지 효소(카탈라제와 페록시다제)와 섞여져 뜨거운 가스 상태로 방출됩니다. 방출되는 가스의 실제 온도는 섭씨 100 도(화씨 212 도)를 상회합니다. 이 기막힌 무기의 열과 냄새를 견뎌낼 포식자는 거의 없습니다.

**황새치(swordfish)**라는 고기는 윗턱에 달린 커다란 칼로 배의 측면에 구멍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새치

물고기가 날아다니는 곤충을 향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물총’을 쏘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는 사수어(archerfish, 射手魚)라는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백발백중의 물총 사격을 위해, 어떻게 복잡한 기하학과 물리학의 방정식을 풀고, 어떻게 날아다니는 곤충의 떨어진 거리와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며, 또한 물 속에서 빛이 굴절되어 보이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 참으로 놀라서 펄쩍 펄 일입니다.

● 무지개색 분광 현상  
(Iridescence)

무지개색 분광 현상(Iridescence)은 태양 빛이 지닌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작의 깃털과 수컷 비둘기의 목털에 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가지런한 깃털 끝의 구조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분광 현상의 찬란함에 대해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 만유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힘, 만유인력  
(Gravity)

만유인력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게 될 뿐,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체들이 땅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또, 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때문에 조수간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극히 미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힘의 근본 원천은 모든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욥기 38:33).

● 하나님의 난방 장치, 멕시코 만류  
(The Gulf Stream)

필자는 늘 멕시코 만류(灣流)에 대해 흥미를 가져 왔습니다. 멕시코 만에서 비롯되는 이 따뜻한 난류(暖流)는 주변의 찬물과 섞이지 않은 채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이 난류는 멀리 노르웨이까지 영향을 미쳐서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서 주변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북유럽의 비교적 고위도에 위치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겐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요! 여러분의 육조가 이같이 되도록 뜯어고치지는 마세요. 그렇게 작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선 특허권  
(God's Prior Claim)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발명품들에 우선 특허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퀴를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금색 바퀴 거미(the golden spider)는 천적인 장수말벌을 만나면 독특한 원판 모양을 취해서 모래 언덕 아래로 초당 44 번이나 굴러서 도망칩니다. 이 속도는 시간당 200 마일(322 킬로미터)을 달리는 차바퀴의 회전 속도와 맞먹습니다.

장수말벌이 자기 보금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던 한 프랑



스 사람은 나무 펄프에서 종이 만드는 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팽이는 자기 집을 스스로 옮깁니다 —이동 주거 자동차의 원조.

낙지나 오징어는 제트기 추진 방식으로 물 속을 돌아다닙니다.

개미, 거미, 꿀벌, 그리고 바다에 사는 비버 등은 숙련된 건축가요 기술자입니다.

누에가 실을 만든 것은 사람보다 먼저입니다. 나란히 있는 연립 주택처럼, 새들도 보금자리를 공동으로 만들기도 하며, 나란히 배열합니다.

나방 같은 곤충들은 사람이 무전기를 사용하기도 전에, 암수끼리 전파 신호 같은 것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옳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 1:9).

### ● 동물의 위장술과 의태 (Camouflage and Mimicry)

우리는 많은 생물들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 보호색을 띠고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교묘한 생존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카멜레온(chameleon)은 수시로 피부를 바꾸는 위장술을 지닌 가장 잘 알려진 동물입니다.

어떤 곤충은 나무 가지나, 껍질, 잎, 또는 가지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독창성은 한없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위장술을 사용하여 자기 몸, 장비, 건물, 그리고 전함을 숨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전기를 생산해내는 생물들

(Electricity)

전기뱀장어는 우리에게 전기 스토브가 있기 전에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전기뱀장어는 550 볼트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으며, 사람도 인사불성이 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전기메기는 분당 300 번의 전기 펄스를 만들어 냅니다. 이 같은 종류의 어떤 고기들(예를 들어 전기가오리)은 그들의 먹이감을 전기로 질식시킨 후에 잡아먹습니다.

개똥벌레(반딧불이)가 발산하는 빛은 100%의 효율이 있습니다. 빛이 열로 손실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빛을 무열광(無熱光)이라 하는데, 우리가 쓰는 형광등의 효율은 이 반딧불에 훨씬 못 미칩니다.

● 수중에서도 생존하는 곤충들

(Underwater Survival)

물매아미 벌레는 잠수할 때, 꼬리에 공기 방울을 달고 다닙니다.

또 물 속에 사는 물거미는 물 속에 거미줄로 종 모양을 직조해서 그 안에 공기 방울을 옮겨 채워 둡니다.

● 새들의 비행 기술

(Avionics)

새들이 존재하는 한,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전문가

는 없습니다. 육지에 사는 어떤 새들은 한 번도 쉬거나 먹지도 않고 바다를 가로질러 몇 천 마일을 날아갑니다. 이들은 나는 동안에 연료를 보충하는 방법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새들은 날아오르기 전에 단지 아주 소량의 체지방을 몸에 비축할 따름입니다. 도중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 그 새들은 너무 늦게 날거나 너무 빨리 나는 것을 피합니다. 그들은 가장 적당한 비행 속도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의 저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새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V-자 편대를 취하면서 하늘을 날입니다.

앵무새과에 속하는 블랙폴(blackpoll)이란 새는 노바 스코티아(Nova Scotia)에서 남아메리카까지 2,400 마일(3,862 킬로미터)을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하는 연료는 새 몸무게의 절반입니다.<sup>24</sup>

이 놀라운 연료 효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이러한 효율을 지녔다면, 1 갤런(3.79 리터)의 가솔린으로 720,000 마일(약 1,160,000 킬로미터)을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서 새 차를 구입해서 나올 때, 영업 사원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한 컵의 무연 휘발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꽤차할 때까지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바트로스(albatross)라는 새는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바다에 시는데, 활공술이 어찌나 뛰어난지 4 시간 동안이나 날개를 젓지 않고 활공을 합니다.

새 뿐만 아니라, 드라코(Draco)라고 하는 날도마뱀이 있는데, 이 높은 나무 사이로 15 미터(50 피트)나 날 수 있습니다. 또 날다람쥐는 높은 나무 가지에서 다른 편 가지로 활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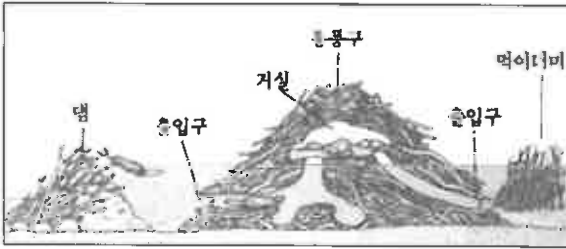


파리지옥은 앞사귀 안쪽에 있는 작은 민감한 털 (방아쇠 역할)을 곤충들이 건드리면 양쪽의 잎을 재빨리 다물어 벌레를 잡는다.

### ● 미끼와 함정 술책을 쓰는 동식물 (Lures and Traps)

여러분은 어떤 물고기나, 곤충, 심지어 식물도 자기들의 먹이감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나 함정 술책을 쓴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먹이를 덮칠 수 있는 교묘한 함정 술책을 씁니다.

**파리지옥(Venus's flytrap)**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종류인데 곤충이 침입했을 때, 잎의 두 쪽을 닫게 하는 아주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이 아닌 어떤 물질이 우연히 이 덮안으로 떨어지면 절대 그 방아쇠 같은 촉수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좌) 비버의 주거지 단면도  
아래 좌측) 비버의 거대한 집  
아래 우측) 왜소해 보이는 비버



좌) 비버는 호수의 수심이 낮은 곳에 집을 짓고 먹이더미와 집을 오갈 수 있도록 물이 흐르는 쪽에 물막이 댐공사를 하여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

문달이거미(trap-door spider)는 땅속 등에 굴을 파서 만든 거미집에서 사는데, 출입구에 여닫는 문짝을 만들어 놓습니다. 침입자가 가까이 왔다고 감지하면, 문을 열고, 갑자기 먹이를 덮쳐서, 안으로 끌어들이니다.

● 일류 건축 기술자, 비버와 직공개미  
(The Construction Gang)

못이나 호수에 사는 비버(Beaver)는 뛰어난 건축 기술자입니다. 이 동물은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 깊은 물웅덩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동물은 먼저 댐을 만듭니다. 통나무와 작은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그 작은 기술자는 그들의 오두막집을 만드는데, 반은 물 속에 잠기고, 반은 물위로 나오게 합니다. 그 오두

막집에 물 속에 몇 개의 출입구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비버들은 꼭 물 깊숙이 출입구를 만들어서 겨울에 얼음으로 막히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겨울철에 양식을 오두막집 가까이 물 속에 저장해 둡니다.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곤충들 중에 직공개미(weaver ant, 織工개미) 라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 세상에서 연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물체중의 하나입니다:

직공개미(weaver ant)는 나뭇잎 가장자리를 붙여서 나무에 다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먼저 몇 마리의 일개미들이 하나의 나뭇잎에 일렬로 늘어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뭇잎의 가장자리를 함께 잡아당깁니다. 다른 일개미가 턱 부근에 어린 개미나 애벌레를 들고 접근하는데, 이 애벌레들이 계속해서 실을 분비합



니다. 일개미들이 나뭇잎을 잡고 있는 동안에, 직공개미는 어린 개미를 도구로 삼아서, 나뭇잎가장자리 사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해서, 실로 짜여진 망이 단단해지도록 합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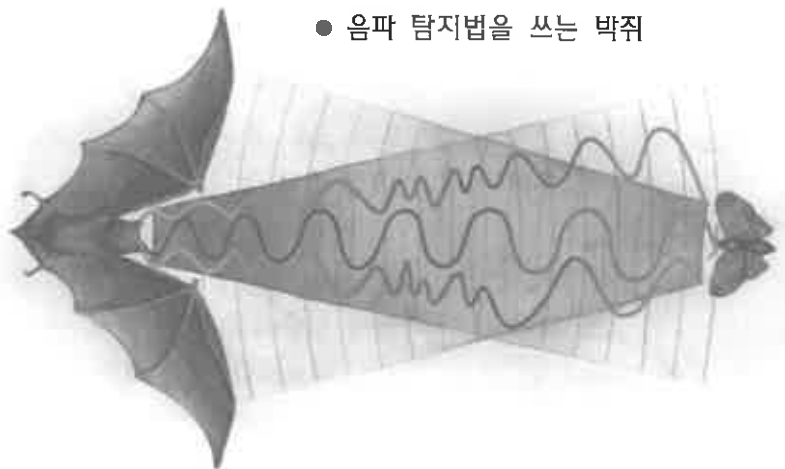
만일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연을 승배해야 합니다!

● 음파 탐지법을 쓰는 박쥐와 돌고래  
(Sonar)

박쥐는 아주 뛰어난 비행술을 지닌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음향 탐지법(echolocation)을 사용하여 잘 날 수 있습니다. 박쥐들은 초음파를 보내서 통로 주위에 있는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것을 감지하여 위치를 탐지합니다.

돌고래도 이 같은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군함들이 암초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방법도 바로 이러한 음파 탐지법을 사용하기

● 음파 탐지법을 쓰는 박쥐



● 동물의 초음파 탐지법을 도입한 초음파 레이더를 개발은 항공기,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

도 합니다. 이는 전자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와는 다른 것으로, 소리, 즉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오리의 방수복  
(Waterproo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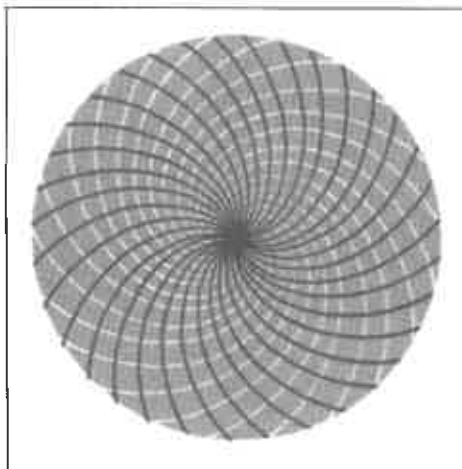
오리는 몸이 물에 젖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리가 이 비법을 알지 못한다면, 몸이 물에 젖게 되어 바닥에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오리는 먼저 꼬리 아래쪽 부근에 있는 기름샘(피지선)을 부리로 누릅니다. 다음에 깃털을 부리 사이에 넣고 비벼서, 얇은 기름 코트를 걸치는 격이 되어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몸이 젖지 않게 됩니다.

- 꽃과 식물  
(Flowers and Vegetation)

모든 나무나, 덩굴, 그리고 꽃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온갖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룬 꽃들에 대한 신비가 밝혀질수록, 우리는 더욱 더 놀라게 됩니다.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생물은 브리슬 콘 파인(**bristle corn pine**)이라는 가시가 달린 솔방울을 지닌 소나무인데,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산맥 동쪽 기슭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은 4,000 년이나 된 것도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나무들로부터 우리는 과일, 견과, 그리고 기름을 얻기도 합니다. 동일한 토양으로부터 나무들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각각 사





### 질서 정연함.

왼쪽의 도형은 위의 사진  
해바라기 씨의 배열이다.  
흑백의 두 가지로 표시된  
나선형의 줄들은 서로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다.  
(흑선은 34줄 백선은 21줄)  
13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의 수열(數列)은  
자연으로 부터 터득된 것이다.  
항상 자연이 먼저이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과나, 배, 호두, 올리브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들은 또한 집  
을 짓는 재목으로도 사용되고, 종이를 만들기 위한 펄프도 제공  
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데도 소용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찌는 더위를 식히려고 얼마다 자주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곤 했는지요!

애리조나에서 광부들이 콩과의 관목인 메스키투(mesquit)라는 나무의 뿌리가 땅 표면에서 700피트(210 미터) 깊이까지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흙이 말한 물 냄새(욥 14:9)를 따라 간 것입니다.

만일 지상에 꽃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 하였다고 했습니다(마 6:29). 어떤 꽃 향기는 고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만든 향기 없는 조화외는 비교가 안됩니다.

### ● 약초 치료 비법 (Herbal Remedies)

약초로 쓰이는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원주민들이 약초를 사용하여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연구하여 치료약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또한 약초를 주로 사용하는 한방처방은 현대 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 ● 생명이 숨쉬는 씨앗 (Seeds)

씨앗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흙 속에 뿌려져 적당한 물기와 햇빛이 있으면 싹

을 띄웁니다.

씨앗이 흩어지는 것도 놀라운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씨앗은 바람이나 물에 의해 흩어지고, 어떤 씨앗은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 옮겨지고, 또 어떤 경우는 새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바로 당신에 의해서도 옮겨집니다 — 씨앗이 당신의 옷에 붙거나, 진흙에 섞여진 씨앗이 당신의 차바퀴에 붙었다가 다른 곳에 떨어집니다.

화학자들은 곡식 안에 있는 모든 성분에 화학적인 이름을 붙이고 이들 성분을 합성해 낼 수 있을 지 모릅니다 --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성분으로 합성된 물질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 생명 번식의 신비, 꽃가루받이  
(Pollination)

꽃가루는 곤충이나, 새들, 박쥐들, 그리고 빗물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옮겨지고 축적됩니다. 예를 들어, 꿀벌은 뒷다리에 있는 특별하게 고안된 부분에 꽃가루를 모았다가, 다른 꽃에 옮겨 다니면서 수정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가루받이(수분)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과일이나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 약재료가 되는 하찮은 버섯들  
(Even Fungi)

일본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버섯은 'FK506' 이라는 의료 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데, 조직 이식과정에서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됩니다.

- 표준 시계의 원리, 원자의 진동  
(Atom Vibrations)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100 만년에 1 초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원자 시계의 베일을 벗겼습니다. 원자의 일정한 진동수를 시계에 응용한 것입니다.<sup>26</sup>

- 그밖에 수없이 많은 것들  
(Much, Much More)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털갈이를 통해 새 옷을 갈아입으며, 뱀들은 허물 벗기를 몇 번이고 합니다. 꽃들의 향기는 환상적입니다. 새들은 그들의 알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와 얼마나 오랫동안 품어야 할지를 압니다. 동면 과정 또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피하 주사기인 침 —작지만 이런 효과적인 주사가 또 있을까요? 참 놀라우신 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로 숨죽이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맺는 말  
(Conclusion)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

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는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정교하고 완벽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대충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 세계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부요하신 지혜와 지식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으리요! 순수한 아름다움과 효율성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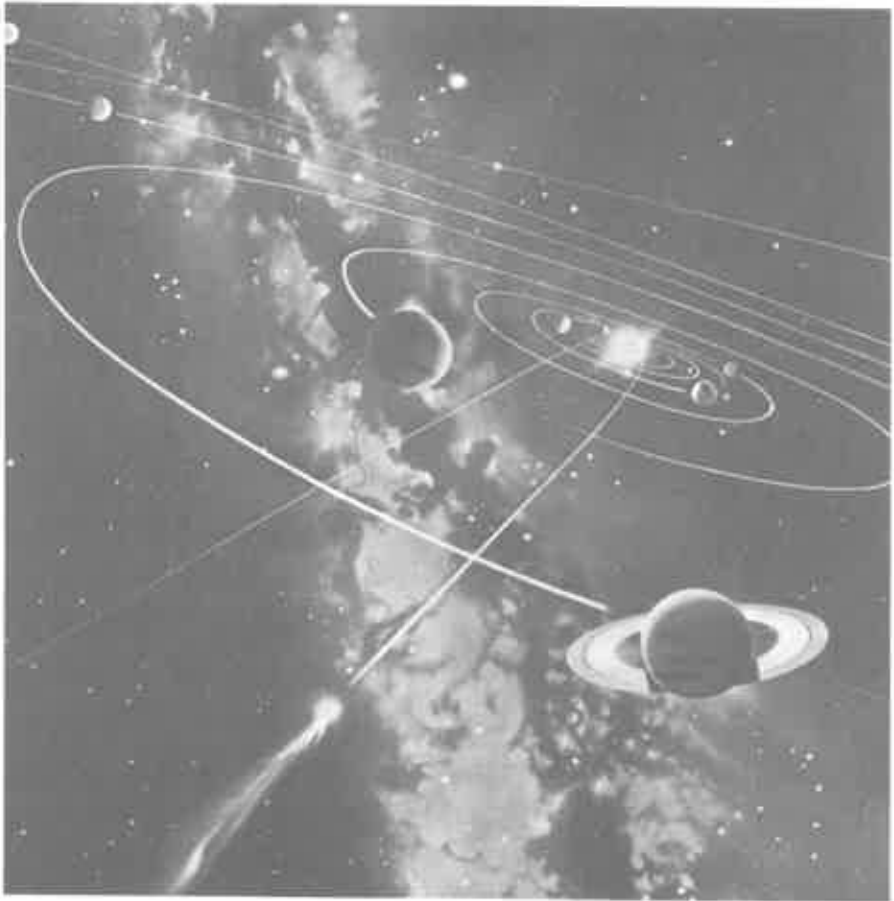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그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Critique of Pure Reason)’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며, 장엄한 서사시를 읊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그의 시는 제법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해봄직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웅장한 모습의 질서와 다양성과 아름다움과 통일성으로 끝없이 펼쳐져서, 우리는 한 쪽 방향으로 공간 끝까지 관찰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온갖 방향으로 다 관찰해야 할지, 가장 광대한 세계를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지극히 미세한 세계를 설명해야 할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각이 미칠 수 있는 지식의 최고봉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너무나 우리 생각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힘을 잃고 그 놀라운 능력을 헤아리며, 오히려, 마땅한 생각조차 품을 수 없게 되며, 우리의 모든 관념들이 표현할 힘조차 잃은 채로 그 경이로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침묵만이

모든 표현을 대신할 따름이다.”<sup>27</sup>

요점 해석: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도저히 언어로 표현 불가능하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자연(自然)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여긴다는



대 폭발 (빅뱅) 이론을 무색케 하는 우주의 질서 정연함.  
성경은 증거한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욥기 26:7)

것은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가요? 살아 있는 생명체의 다양성과 놀라운 디자인은 이구 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손은 하나님의 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 12: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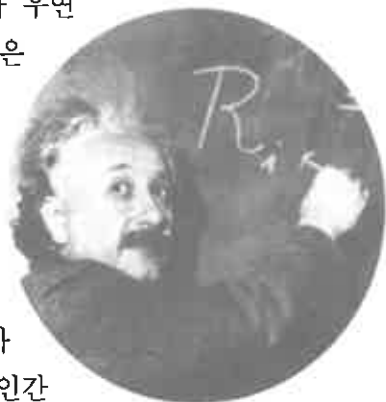
인간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의 신비, 그리고 말하는 것과 소화의 과정, 정교한 손놀림, 방대한 기억력, 생각하는 과정, 감정, 유전...

또한 천체의 훌륭한 조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기의 최적의 구성분과 밀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의 독특한 특성, 인력의 법칙 등.

이 모든 완벽한 조화와 섭리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된 것일까요, 혹은 어느 잡지가 보도했듯이, “놀라운 생명체의 미친 장난”에 의해서 일까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주의 법칙의 조화는 절대자의 지혜를 드러낸다. 이에 비해 인간



의 모든 지식 체계는 하찮을 뿐이다.”

아이작 뉴턴 경(Sir Isaac Newton)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그의 결론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태양계는 놀라운 지혜를 지니신 절 대자의 주권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신다.”

보다 최근에는, 로켓 과학자로 잘 알려진 베르너 폰 브라운 (Werner von Brau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 모든 우주의 놀라운 법칙과 질서를 접하고서 그 뒤 에 절대자의 설계와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창 조 세계를 더욱 자세히 살핌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얻게 된다.”

프레드 호일레 경(Sir Fred Hoyle)이라는 영국 천문학자는 회의론자이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은 희오리마람이 비행 기 고철 더미를 휩쓸고 지나간 후에 커다란 제트 비행기가 저절 로 조립되는 것과 같다.”

예일 대학교 분자생물학과 교수인 해롤드 모로위츠(Harold Morowitz)는 말하기를,

“50 억 년만에 단 하나의 박테리아가 저절로 생성될 확률은 10 의 110승 분의 1(거의 불가능)이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많은 예 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컴퓨터 모든



부품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린 후에 저절로 컴퓨터 완제품으로 조립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회오리바람이 인쇄소에 쌓인 종이를 휘날리게 했는데 영어 사전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며, 벽돌을 마구 던졌는데 근사한 궁전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바람에 금속 조각을 집어 던졌는데 스포츠카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진화론을 억척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카한네(Ernest Kahane)**라는 독일 생화학자는 그의 저서, 「진화의 세계상(Weltbild der Evolution)」에서 다음과 같이 웃지도 못할 말을 했습니다:

“살아 있는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sup>28</sup>

그러나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편협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고의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본성적인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언행을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며 자기가 신봉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화론에 집착하는 고집스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 앞에 감탄합니다. 그들은 “신비롭다, 경이롭다, 놀랍다,…” 등의 감탄사를 덧붙입니다.

다. 그들은 자기가 알게 된 것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으면 합니다.

이같이 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시자(Originator)요, 유지하시는 분(Sustainer)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우리의 의식을 확 일깨우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경외심과 찬양과, 감사로 이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렉스 로스(Alex Ross)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말씀은 점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고조되어집니다. 마지막 여섯 개의 시편은 찬양을 위한 온갖 악기를 총동원 하다가, 최종적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는 말씀으로 올려 퍼 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어우러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라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 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시 145:4).

또한 온갖 타악기로 연주되는 소리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시 148:8). 여기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의 관현악이 가세하여 심령을 북돋웁니다. 그리고 또한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 밝은 햇살, 분위기 있는 월광과 별빛…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심을 입은 그대여 주님을 찬양하라!”**

수많은 이들에게 참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끈,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일컫는 아이작 왓츠(Isaac Watts)는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노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리  
그 권능으로 산들을 일으키시고,  
넘실대는 넓은 바다를 펴시고,  
높다란 파아란 하늘을 펼치신!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지혜를 찬양하리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캄캄한 밤을 밝히게 하시고,  
모든 별들로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하신!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리  
땅에 식물로 가득 채우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네!

내 발이 밟는 땅을 살펴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도  
온 사방을 둘러 봐도  
세상에 가득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

단 하나의 풀도 단 하나의 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없으리  
떠도는 구름도 휘몰아치는 폭풍우도  
주님의 보좌의 명을 따르리!

주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것이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네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나  
주 하나님, 거기 계시네!



“

회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임위하시도다  
(시 66:5).

”



## 제2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The Wonders of God in Providence)



#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움

(The Wonders of God in Providence)

## ☐ 개 관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의 창조주(The Creator)이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불드시고 유지시키시는 분(The Sustainer)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셤느니라”(골 1:17 후 반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을 결합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물질을 결합시키는 근본 원리는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기록대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시 145:16).

생물계가 전 생태계적인 먹이사슬로 유지되는 것은 비정한 일



이러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기의 성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녀를 선별해서 낳지 않는 한, 어느 나라의 인구를 보더라도 남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자(The Sovereign)이시기 때문에, 역사(History)는 그분의(하나님의) 이야기(His story)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부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때때로 천하거나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 21:1).

주사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절

대적이고 선하신 뜻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을 절대적인 주권 하에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진지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여러 가지 길에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의 눈에 띄는 위협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보호막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불면증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 라고 유머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든가, 비극, 죽음까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 뒤에 숨어 있는 복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제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 그리고 모든 악한 사람들 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바이러스, 병원균, 알레르기의 진행 과정에 대한 도표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창, 화살, 총알, 그리고 미사일을 제어하십니다 — 심지어 교통 신호등의 시간까지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와 전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분은 태양을 명하여 낮과 밤, 사계절이 때를 따라 바뀌도록 성실하게 규정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W.Cowper)의 불후의 찬양사에서, “하나님께서서는 바다가운데를 밟고 다니시며 폭풍을 타고 다니시네!” 라고 노래했습니다.<sup>1</sup>

우리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도덕적인 법(Moral Laws)이 계속해서 효력을 지니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도록 친히 지켜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움에 보상을 내리십니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죄를 즉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변성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시 37:35).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세에는 의로운 자도 고통, 질병, 그리고 고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악한 자들의 경우처럼 줄지에 세상을 떠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고나 재난을 겪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는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 장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 명이나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

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 13:4-5) 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필전은 말하기를, “보이는 하나님의 섬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법(Spiritual Laws)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이행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약속 보증입니다. 어떤 이의 말대로, 하늘 나라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견고하신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어떠한 것도 모든 방향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면의 모든 생각과 숨은 의도까지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각각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The Judgement of the Great White Throne) 앞에서, 하나님과 그 각 사람 앞에 낱낱이 펼쳐질 것입니다(계 20:11).

성도들의 모든 행위들도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The Judgement Seat of Christ)에서 상급을 나눠주기 위해 있습니다(고후 5:10). 그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 행한 것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을 하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시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치유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어떤 언어로도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각각의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혀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단되거나 막힘이 없이 진행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습시다(시 139:18).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처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끝없이 기록된 책입니다. 당신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주관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남의 나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으로 하여금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로 인도하시어,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들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여러 가지 음모와 온갖 계략과 등골이 오싹하는 임박한 참사의 모의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두 가지 실로 짜는 듯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으며, 또한 다니

엘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호적령이 내려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이 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주관하셔서 우리와 모든 인류가 죄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전도자 빌립이 성령에 이끌리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빌립이 그의 병거로 다가갔을 때, 때마침 그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며, 그 말씀을 빌립이 풀어줌으로써, 내시의 마음 눈이 열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었지만, 옥중에서 귀중한 성경의 4 개의 서신서(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밧모섬으로 추방되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연이나 확률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모으시고 개입하셨던, 근래의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히 정하시고 인도하신 비슷한 예들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어둠 속에서의 안전한 착륙  
(Happy Landing)

때는 주후 1971년 봄, 플로리다 주, 베로 비치(Vero Beach) 해변,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전도자는 그의 아들 프랭클린(Franklin)과 프랭클린의 비행기 훈련 지도 선생님인, 켈빈 부스(Calvin Booth)와 텍사스 주, 롱뷰(Longview)에 있는 프랭클린의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안전 운행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폭풍우가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잭슨(Jackson) 지방 북쪽으로 가서 롱뷰 서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항로는 빛이 있는 여러 큰 도시 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항로는 인가가 드물어서 빛도 별로 없는 시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잭슨 지방에 가까이 왔을 때, 기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조명시설도, 항법장치도, 레이더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강해서 잭슨에 착륙할 생각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관제소와 교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잭슨에 이르자, 활주로 빛이 최대로 밝아지며, 섬광전구가 번쩍이며, 초록 불빛을 비치며 착륙하라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4 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제소에 근무하는 한 관제사가 두 사람의 손님들에게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시범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 개 색깔의 조명 장치

를 가지고 관제탑 안에서 빨간색과 흰색 조명을 켜 보이다가, 어떤 이유인지 초록색 빛의 시범을 보일 때에, 그 관제사는 창문 바깥으로 그 조명 장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초록빛은 비행사에게 착륙해도 좋다는 분명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그 관제사는 활주로 불빛이 최대 밝기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밝은 빛은 안개와 구름을 뚫고 보였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료 관제사가 불빛도 없는 비행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50마일 이내의 상공에는 비행기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 프랭크린 그래함과 켈빈 부스가 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관제사가 손님들에게 시스템의 작동 시범을 보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후에 켈빈 부스는 기록하기를, “...이 사건은 우리 삶의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새롭게 깨닫게 했다”<sup>2</sup>라고 말했습니다.

● 한 성도의 의문이 팀북투에서 해결되다.

(A Saint's Doubts Dissolved in Timbuktu)

스티브 세인트(Steve Saint)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여행 중에 의문에 싸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삭막한 사막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친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Nate Saint)라는 분은 선교사였는데, 주후 1956년 에콰도르에서 오카(Auca)

인디언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을까요? 왜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스티브는 유니세프(UNICEF)라는 글씨가 새겨진 6 인승 비행기를 타고 팀북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의사가 되돌아갈 비행기에 타야 했습니다. 스티브는 막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말리(Mali)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스티브는 트럭을 타고 가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사막에서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신사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 봤지만, 신호만 계속 갈 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팀북투에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몇 젊은 이들이 언어 소통이 서툰 데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교회 건물 옆문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혀 있는 십자가 그림이었는데, 프랑수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검은 색 피부에 길게 늘어진 옷을 차려 입은 깔끔한 차림의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은 즉시 스티브 세인트를 발견하고, 한 선교사를 찾아 통역을 통해서 자신은 노우(Nouh)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우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샬(Marshall)이라는 선교사의 농장에서 당근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 선교사는 저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근도 도로 주고, 성경 구절이 적힌 카드와 또한 메모

도 할 수 있게 불펜도 주셨어요. 후에 제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이 이유로 저의 어머니는 음식에 독약을 넣었어요. 제가 음식을 먹었지만, 별다른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동생이 그 음식을 몰래 먹고 심하게 고통을 겪다가 신체가 부분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어요.”

스티브는 그에게 물어 봤습니다:

“형제님과 같이 십대의 어린 나이에, 주님으로 인해 사회 전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같은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그때 노우는 그 선교사가 자기에게 몇 권의 책을 주셨는데, 노우는 그 책중에서 남아메리카 정글에 살고 있는 원시 시대 사람 같은 인디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헌신했던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 통역하던 선교사가 말하기를,

“나도 그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신 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 분이 우리 아버지지요.” 라고 스티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노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스티브가 대답했습니다.

스티브가 그 날 밤 공항으로 돌아와 보니, 그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비행기에는 스티브가 탈 자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확신



케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통해서, 노우라는 성도에게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했으며, 그리고 노우는, 그 대가로, 아버지의 신앙을 저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sup>3</sup>

● 한 성도의 출항을 막으신 이유  
(The Stops of a Good Man)

제임스 그레이(Dr. James M. Gray) 박사는 바다로 여행하면서 그의 오랜 투병 생활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출항 시간이 이르렀을 때, 그는 또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 표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는 여행을 통해서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화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보쉬(H. G. Bosch)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곧 그는 이 의심했던 문제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다가, 자신이 타려고 했던 배가 존 하버 해협(St. John's Harbor)에서 암초에 부딪혀 순식간에 침몰된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그를 도우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 번 극적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sup>4</sup>

● 그 분이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Was It An Angel?)

네드 메하르그(Ned Meharg)와 프랭크 하거티(Frank Haggerty)라는 호주 출신 두 선교사는 볼리비아의 어떤 외곽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그들은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캠프를 설치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방의 호텔에는 식당이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갔을 때, 주인 여자가 음식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그들은 경찰서로 가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 봤습니다. 경찰관은 “물론, 마을에 있는 호텔 식당에서 구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이미 그곳에 갔다가 되돌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날 따라 와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그 여자 주인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45 분 지나서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여자는 감자와 고기 요리를 차려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시장했었지만, 프랭크가 고기 맛을 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네드는 말하기를, “그러면, 그 고기를 이리 주고 이 감자 먹어 보게.”

곧 바로 네드는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의 뱃속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거푸 물을 몇 컵 마셨으나,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고기에 몰래 쥐약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식당을 떠나서 캠프지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드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그는 프랭크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내 성경책을 고국에 계신 우리 부친께 보내 주게.”

프랭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한 키 큰 사람

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친구가 지금 몹시 위독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만 계세요, 내가 곧바로 돌아 올 테니.”

곧 그 사람은 염소젖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당신 친구에게 이것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그의 친구가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친구 입을 벌리고 억지로라도 삼키도록 하세요.”

프랭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네드는 눈을 떴습니다.

흥분해서 프랭크는 말했습니다:

“자, 네드, 이 염소젖을 마음껏 많이 마셔.”

네드는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네드는 복부에 손을 얹으면서,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키 큰 사람이 떠나가고, 네드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네드와 프랭크는 그들의 “친구”를 위해서 항아리 밑에 돈을 조금 남겨두고,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그 지방에 돌아 왔을 때, 그들은 그 키 큰 사람을 다시 찾아 뵙고 감사를 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그 신기한 방문객에 대해 말했을 때, 주민들은, “이곳에는 키 큰 사람이라곤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두 선교사는 염소 젖 항아리에 대해 말했더니, “이곳에는 염소라곤 단 한 마리도 없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드와 프랭크는 후에 뉴질랜드 출신 동료 의료 선교사인 브

라운(Dr. Brown)에게 그들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이 의사는 말하기를, “그 호텔 주인이 고기에 ‘흰 인’이 들어있는 쥐약을 넣었는데, 이것을 해독하는 데는 염소젖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 14).

● 적시 적소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데이비드 존슨(David Johnson) 선교사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었는데, 마닐라에 있는 의사들이 진찰이나 치료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 그는 리이터 증후군(Reiter's Syndrome)에 걸린 것



을 알게 되었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치료를 받고 주님의 일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호놀룰루에 중간 기착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한 매력 있는 필리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복음 책자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대통령 미망인, **이멜다(Imelda Marcos)** 여사였습니다. 만일 데이비드가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들, 그는 결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가 질병에 걸리도록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 오늘 식사는 공짜입니다.  
(No Free Lunches? Here's One)

**리처드 발더(Richard Varder)**는 순회하면서 복음 책자를 배포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의 믿음은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음 소책자를 몇 시간 배포하고 나서, 몹시 피곤하고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음식을 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공급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영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감사 기도 드리며 자기의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신경 과민 반응하듯 눈살을 찌푸리고 뺨두리를 늘어놓는 행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서, 주인이 앉아 있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이 식당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첫 손님에게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음식값은 무료입니다.”<sup>5</sup>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짜로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해보라는 백지수표 위임식의 초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이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위험한 행위가 되며, 빈 접시 바닥만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

● 신분을 확인해준 성경 구절  
(The Identifying Verse)

빌리(Billy B\_\_)는 방콕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내 2 개의 소식지의 특파원으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표 사인을 할 때, 항상 자기 이름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Billy B\_\_, (빌 1:21)”**

그리고 그는 은행에서 매번 대면하는 동일한 은행원을 통해 일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 은행원이 빌리에게, “(빌 1:21) 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빌리는 그것은 자신의 삶의 지표로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는 내용이며, (빌 1:21)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1장 21 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리엔탈 호텔(Oriental Hotel)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빌리는 급히 떠나느라, 서류 가방을 갖고 나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표 묶음이 들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원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현금 잔액도 있었습니다.

식당 웨이터는 서류 가방을 슬쩍해서, 몇 장의 수표를 꺼내서, 빌리의 사인을 훑내내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묘하게도 그는 매번 빌리가 대면했던 그 은행원에게로 갔습니다. 그 은행원이 수표를 검사해 보니, 그 수표에 기록한 사인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서명한 이름 옆에 “빌 1:21”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행원은 빌리를 불렀습니다. 빌리가 은행에 들어오자, 그 웨이터는 도망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빌리의 돈을 지켜 주었습니다.

-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God Speaks through His Word)

주후 1989년 1월 6일, 필자, 윌리엄 맥도날드(William MacDonald)는 “신자 성경 주석(Believer’s Bible Commentary)”(전도출판사 刊) 신약편을 마지막으로 교정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컴퓨터 고장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컴퓨터로 전산 편집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변환하려 할 때마다, 새로운 오류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훼방을 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날 아침 필자는 한 영업 유통 회사로부터 일상적인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다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이 일에 착수 하여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성전 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대상 28:20,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은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 낙타에서 떨어진 사건과 콜레라를 통한 인도하심  
(Guided by a Camel Fall and Cholera)

네 명의 그리스도인 의료 선교사들은 중동 지방을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장소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랙 박사는(Dr. Black) 낙타에서 떨어졌습니다. 케이트 박사(Dr. Keith)는 그를 영국으로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케이트 박사가 콜레라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당한 딱한 소식을 오스트리아의 공주(Archduchess), 마리아 도로시아(Maria Dorothea)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Archduke)는 그곳에 머무르는 선교사는 누구든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도시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회심한 사람들 중에 알프레드 에더샤임(Dr. Alfred Edersheim)과 아돌프 샤피르(Adolph Saphir)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타에서 떨어진 사고와 콜레라의 질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sup>6</sup>

- 하나님의 섭리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Providence, Not Coincidence)

윌리엄 류(William Rew) 마가렛 류(Margaret Rew) 부부는 외딴 오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곳은 당시의 벨기에 영의 콩고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꼭 세상의 귀퉁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흔히들 말하듯이, 이는 그 곳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600 마일(966 킬로미터)을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건기를 택해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했으며, 다녀오는데 3 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들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긴 구입 물건 목록표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열 세 명이 탄 대형 트럭이 오더니만, 류 부부가 기거하는 집 때문에 물건을 쌓아 놓고 갔습니다. 이 물건들은 한 탐광자가 보내 온 것인데, 그는 전에 한 때 질병에 걸려서 류 부부의 간호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자기가 쇼핑을 할 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연간 필요한 물품을 사드릴 것을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류 부부의 아이들도 당시에 상당히 엄한 가정 교육을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때로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다가오자, 그들은 발에 뭔가를 신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안나(Anna)**가 제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같은 나라 출신 상인이 신발을 팔러 그들의 집 앞에 왔는데, 그가 500 마일(805 킬로미터) 떨어진 엘리자베스 빌레(Elizabeth ville)에서 구입했었던 신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그 신발을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 신발은 안나에게 딱 맞았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어(F. B. Meyer)**는 말하기를,

“믿음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다. 사람이 판단한 우연이란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 ● 거미줄의 능력

(The Power of Spider Web)

**마크 윌러(Mark Wheeler)**는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 학

대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던 프레더릭 놀란(Frederick Nolan)이란 분의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

프레더릭 놀란(Frederick Nolan)은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 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몰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이 안 지나서, 그 조그마한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 멋지게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를 잡으려 쫓아 왔던 사람들이 도착해서 프레더릭 놀란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입구에 쳐 있는 거미줄을 보고서, 거미줄이 뜯겨짐이 없이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위협에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을 나와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선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 구하기도 전에  
(Before they call...)

온두라스(Honduras)에 파송된 선교사인 짐 해서마이어(Jim Haesemeyer)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야 했지만, 그는 낙심해서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이 열빠진 짓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침체를 경험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마

음을 털어놓고, 텍사스주 러복(Lubbock)에 있는 경건한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기도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치려는 순간, 사서함에 러복에 있는 바로 그 형제로부터 15 개월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나는 부모에게조차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는 당신의 상태를 알게 되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부담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침체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힘든 순간도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러복에서부터 16 일이 걸려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짐이 침체에 빠지기 전에 그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

● 마침 그 때에

(In the Nick of Time)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 월 8 일 눈보라가 치면서 넓은

지붕이 눈의 무게를 못이기고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은 도둑은 이때야말로 한 건 잠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도둑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일층을 뒤지고, 이층으로 올라가 아기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깨면 자신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는 그 어린아이를 바깥으로 옮겨서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곧 아기는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을 깨게 되었고, 그들은 그 울음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간 직후,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도둑은 약탈물을 쥔 채로 잔해에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참새들도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sup>8</sup>

### ● 무심코 던진 말

(A Seemingly Chance Remark)

주후 1989 년 추수감사 주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David Johnson), 매트 클락(Matt Clarke), 그리고 필자, 윌리엄 맥도날드(William MacDonald)는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캘리포니아, 롱 파인(Long Pine)에 도착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아 몹시 가뭄이 심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여관을 떠나기 전에, 그 날의 일정을 주님께 기도로 의탁 드렸습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차 지붕에 스키를 부착하고 북쪽으로 가는 차를 보면서, 우리는 킬킬 웃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한 때에 어디로 스키를 타러 간단 말

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모노 레이크(Mono Lake) 호수까지 북쪽으로 세 시간 차로 가서, 티오가 패스(Tioga Pass)를 거쳐 요세미티(Yosemite)와 집까지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산대에 서 음식값을 치르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스키 철에 한 몫 할테니까 당신은 눈이 오기를 바라겠군요?”

그녀는 대답하기를,

“참 재미있으시군요. 지금 티오가 패스에 눈이 내리고 있어서, 그 길이 겨울철 내내 폐쇄되었다는 방송 보도가 막 나왔어요.”

우리는 랭거역(Ranger's Station)에 그 보도가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모든 길이 폭설로 막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여자가분이 무심코 한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여섯 시간을 헛수고 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차를 몰았으며, 서쪽으로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로 가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등석  
(God's First Class Provision)

보이드 니콜슨(J. Boyd Nicholson) 형제님께서 자이르(Zaire)에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난 후, 캐나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첫 구간은 우간다로 가는 조그마한 사절단 비행기에서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독재자 아이디 아민(Idi Amin)의 압제에서 도피하고 있었으며, 백인들도 입국

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엔테베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직원이 니콜슨에게 즉시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이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방 시한이 오후 2 시로 연장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던가, 체포되던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주의 좋은 하늘을 향해, 천사들과 모든 권세와 모든 세력이 복종하는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후 1 시가 되자, 영국 비행기가 런던으로 가던 중 연료 보충을 위해서 예고 없이 착륙하였습니다. 그 비행기 승무원은 빈 좌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다만 니콜슨의 짐만 신도록 허락했습니다.

비행기 주유를 마치고 승객들이 다시 비행기를 타기 시작할 때, 진퇴양난에 처한 이 선교사는 승객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구에서 아무도 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비행기표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빈자리가 없나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니콜슨의 이러한 행동을 본 승무원은 그를 도와주려고 좌석 번호를 물었습니다. 니콜슨은 당연히 비행기표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때, 그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무원은 니콜슨이 그 나라에서 떠나느냐 체포되느냐 하는 딱한 처지를 그 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탑승 수속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승무원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참 이상한 일이군요, 선생님. 좌석이 모두 차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 좌석은 선생님의 좌석입니다.”

곧 그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주님의 종은 일등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오후 2 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후 식사가 나오는 중에, 승무원은 니콜슨에게 고기 요리가 모자라서 대신에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터번을 머리에 두른 시크교도가 통로를 지나가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바로 고기 요리는 니콜슨의 식탁 위에 놓여졌습니다.

니콜슨은 옆에 앉은 분이 항공사 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선교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나서, 가능한 모든 도움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오후 11 시에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출입국 관리소와 세관을 같이 나와서, 항공사 사무실로 가서 공항 호텔에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까지 교통편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스코틀랜드와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열거하면서 니콜슨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시는가 나는 참 놀랍다. 그 날 저녁, 나는 호사스러운 샤워를 하고 나서, 킹 사이즈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복상하는 동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이 모두 복종하는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미소짓지 않을 수 없었다.”<sup>9</sup>



● 특이한 성경 구절  
(Extraordinary Texts)

수년 전에, **봐인(W. E. Vine)**과 그의 형은 영국, 엑스터(Exeter)에 있는 한 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바트(Bath)에 있는 선교사 후원 기관인 「봉사의 메아리(Echoes of Service)」의 일에 함께 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둘 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봐인은 연속적으로 읽고 있던 신명기 37장 7절, “Thou must go with the people(너는 백성과 함께 가야한다)”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 무렵에 그의 형은 봐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집회를 참석 중이었는데,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벽에 예사롭지 않게 함께 적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I was left... With good will doing service as unto the Lord(나는 남아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사 49:21; 엡 6:7).

그들은 관주를 참고하고 나서, 의외의 구절에 놀랐으나, 좀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학교의 교사 일을 담당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봐인은 편한 마음으로 바트(Bath)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 날 아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봐인은 전에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을 만났는데,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고, 교장 선생님 보좌역을 맡고 싶다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봐인이 그 일을 착수하게 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 하심이었습니다.<sup>10</sup>

● 천사 합창단  
(Angelic Choir)

어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이나 천국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스테반도 순교당하기 직전에, 주님과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행 7:55-56).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에서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오라니(Waorani(Auca)) 인디언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1989년 1월, 그들 일행이 순교를 당한지 33년이 지나서, 올리브 플레밍 리필드(Olive Fleming Liefeld)는 그녀의 남편, 월터(Walter)와 함께 그 순교 현장을 재방문 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 피터 플레밍(Pete Fleming)은 당시 순교자들 중에 끼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방문기간 중 어느 날, 래첼 세인트(Rachel Saint: 또 다른 순교자 네이트 세인트(Nate Saint)의 누나)는 당시 순교 현장에

있었던 두 명의 인디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숲 속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들이 순교 당했던 바로 그 해변에 있었습니다.

두 명의 인디언은 그 때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무 위로 올려다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둘러 싸여 있는 장면을 목격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매우 강한 빛으로 반짝이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윌터와 올리브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순교 당했던 바닷가로 쫓겨 나오기 전 날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순교자들은 그 찬란한 영광을 미리 맛보았으리라!”

###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오래 전에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외국인들의 수용소를 세웠던 때였습니다. 이 수용소들 안에 다양각색의 기업인과 교수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감금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리스(Christopher Willis)는 선교사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수용소 안의 무자비한 상황에 대해 기도하던 중,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식당에 달아 놔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용소에 수용되기 전에, 그는 종이와, 물감과, 붓을 싼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는 수용소 측에 허락을 얻는 일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소장, 그랜트(Grant)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로 150 cm, 가로 90 cm 의 크기로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주일 날 아침 일찍, 그는 이 종이를 방 끝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구절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 6장).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감시단은 그것을 뜯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로는 단지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종이를 액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스는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침대 나무의 일부분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절의 모든 단어가 그들의 기도책에 있으며,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식당에서 행사가 열리도록 되어 있었고, 그 족자가 무대 기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 내려져서 한 쪽 구석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빵이 떨어졌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밀가루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3일째 아침 식사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일은 없어진 족자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란 말씀 구절을 치웠어. 그 때부터, 빵이 나오지 않았어.”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우리 마스코트야. 다시 그 족자를 달아야 한다구.”

족자를 떼어 내렸던 사람들은 다시 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이 다시 배급되었습니다.

몇 달 더 지난 후에, 또 다시 행사가 계획되었고,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그 족자 위에 두꺼운 커튼을 덮어 씌웠습니다. 다시 빵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이스트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족자를 뒤덮은 커튼에 대해 수군거렸고, 커튼을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커튼을 치운 후에 빵이 식탁 위에 다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씀 족자가 떨어져서 피아노 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시 빵이 끊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윌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말씀 족자에 못을 단단히 박아서 아예 떼지 못하도록 해야겠어요.”

그 족자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수용소가 폐쇄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또 다시 빵의 공급이 끊어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sup>12</sup>

### ● 진퇴양난 시의 도움의 손길

(A Very Present Help)

돈 해리스(Don Harris)라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섯 명의 멕시코 사람과 저녁 성경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정 전에는 귀가하여 부인, 클레리(Claire)가 잠 못 자고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밤은 사정이 달

왔습니다.

지루하게 쪽 뺀 길에서, 엔진이 고장이 나서 길가에 차를 가깝스로 세웠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차에서 뛰어 내려서, 후드를 열고 고장 원인을 알아 봤습니다. 다들 이런 저런 원인일 거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가 조주틀라(Zozutla)에 사는 전문 정비사인 사울로(Saulo)에게 가 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네 명의 형제들은 가까운 마을로 걸어가서, 조주틀라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성도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돈(Don)이 차안에서 파누엘 몬토야(Fanuel Montoya)와 기다리는 동안,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하며 고민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침묵을 깼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지금 문제 위에 멍하니 앉아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다니!”

“맞아요!” 라고 그 형제도 송구스러운 듯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엔진 고장이 해결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적어도 자정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그 시간까지는 귀가하려고 합니다.”

두 시간 후에 네 명의 형제는 정비사 사울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점검하더니만, 점화선이 불량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자동차 부품 가게도 없었고, 있다 해도 그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 폭스바겐 차인 “버그(Bug)”가 지나갔습니다. 그 차 운전자는 이 사람들이 혹시 노상 강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마지못해 섰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이고, 50 미터 앞에서 U-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정도까지 천천히 되돌아 왔습니다. 그는 계속 가더니만, 다시 되돌아 와서, 마지막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성도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뭐 제가 당신들을 도울 일이 있나요?”

사울로는 “점화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인은 뒷좌석에서 보쉬제 점화선을 꺼내서, 사울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멕시코에서는 보쉬제 수입 점화선은 흔하지 않았으며, 멕시코산보다 훨씬 질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에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돈 해리스는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 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소책자를 받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섯 명의 돈 일행은 재빨리 점화선을 교체하고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자정을 지나서 2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살며시 침대로 걸어가서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정 전에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돈은 고백했습니다:

“그 때는 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시들해진 기간이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 불과 한 뼘 차이로 구한 목숨

(Saved by a Few Inches)

짐(Jim)은 산간벽지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알지 못했으며, 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형제인 페드로(Pedro)가 자원해서 자기 트럭에 같이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서지 않고 달려서, 그 집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짐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섭게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활주차에 타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껴 꿈을 깨어 보니, 그것은 꿈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생시였습니다. 그 작은 트럭은 젖은 산길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로 옆을 들이받고는 독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이리저리 뒤집히다가 운전자 쪽이 바닥에 닿은 채로 멈추었습니다. 충격이 다소 가라앉고 짐은 자신이 살아 있으며, 페드로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은 깨진 유리창 밖으로 기어 나와서, 무심코 뒤 유리창 위에 있는 라이트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페드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트럭 안쪽에 있었고, 머리와 목만 바깥으로 나와 있었으며, 차가 그를 꼭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페드로가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짐은 그가 아직 살아 있음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즉시 짐은 차를 들어 올려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 손을 흔



들어 세웠습니다. 운전사와 짐은 차 밑에 깔린 페드로를 꺼내보려고 몇 번이고 시도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페드로는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는 고요한 산중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 것도 볼 수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는 버스였습니다. 버스 승객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는 즉시 모두 내렸습니다. 승객 인원은 모두 20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으로 내려와서, 힘을 합쳐 트럭을 들어 올려 페드로를 구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짐은 위협과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섭리를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드로의 머리 바로 옆에 큰 돌이 있어서 차의 무게를 모두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페드로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트럭이 왼쪽으로 불과 한 뼘 이내에 있었어도, 트럭이 그의 머리가 짓눌릴 상황이었으며, 오른쪽으로 몇 인치에 있었어도 그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는 턱을 조금 다쳤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 본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짐과 페드로는 놀라우신 주님의 정확한 계산임을 알았습니다.

차가 서로 충돌하고, 이리저리 구르고, 유리 파편이 날리고, 차체가 찌그러지고, 차안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 ● 작고 희미한 목소리

(The Still, Small Voice)

선교사 윌리스 로잔(Wallace Logan)은 집에서 휴가를 보내

며, 뉴욕에 일시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뉴저지에 있는 노 여자 성도를 방문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 보았지만, 응답이 없자, 아마 바깥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그 생각을 떨쳐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차를 타고 그 자매 집으로 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의 강박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다섯 사람이 줄을 서 있었고, 넷, 셋, 둘,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이 때, 욘커스(Yonkers)에 있는 베다니 교회(Bethany Chapel)에 다니는 한 성도가 지나가다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로잔 형제님,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그 선교사는 뉴저지에 있는 성도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고 설명했으며, 마침 둘 다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 성도는 20 달러를 주면서, “그럼, 이 돈으로 기차표를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기차표 값은 7 달러였습니다).

로잔은 기차에 올라타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세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노 성도님은 마루에 있었습니다. 그 노 자매님은 마루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지 이틀이나 되었습니다. 로잔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노 자매님은 잘 회복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노 자매님이 희미하게 말하는 기도를 들으셨으며, 이 선교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끼쳐서 여러 장애물이 있었을지라도 그녀에게 가도록 하셔서 적시에 도움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계산  
(God's Perfect Timing)

리처드 디한(Richard De Hann)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Grand Rapids)의 방송 설교자입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탐파(Tampa)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인디애나, 라파예트(Lafayette)에 이를 때까지 모든 상황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때, 비행기 조종사가 시카고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안전 벨트를 꼭 매라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굳게 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시카고의 오헤어 필드(O'Hare Field)에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로 경유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애틀랜타로 돌아와서,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카고의 날씨가 호전되었습니다. 오헤어를 지나서 비행기는 무사히 도착하기는 했습니다.

이빨싸! 그랜드 래피드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차를 타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디한은 기차역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에게 돈도 얼마 있지 않았습니니다.

피곤하고 긴장한 탓에, 그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한의 집 옆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로 돌아가려는데, 길이 계속 막히는 바람에 차에서 그냥 내렸지 뭐야.”

“그거 잘 됐구나. 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후에 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우연의 일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그 도로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관하고 계셨다. 다음 날 나는 내가 타려고 했던 그 기차가 시카고 근처에서 탈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전날 내가 불평했던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버스가 조금만 더 빨리 갔어도, 나는 그 친구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오랜 시간을 지체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언제나 완벽하다.”<sup>15</sup>

### ● 예비된 좌석

(Pre-assigned Seating)

존 아커(John Aker)는 뉴아크(Newark)에 있는 뉴저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거의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의 자리 바로 옆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처드(Richard)였는데, 슬로안-케터링 암 연구소

(Sloan-Ketterin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에 입원했었으며, 10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고향 네브래스카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 아커는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 실례지만,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한 후에,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장래를 주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앞에 있는 무덤 저편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리처드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하늘의 구름 속에서 주 예수님을 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갔습니다. 존은 다시 뉴 아크에서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여자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분이 리처드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 여자분은 네브래스카, 비트리스(Beatrice)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으며, 자기 아들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큰 격려를 받았으며, 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존이 하필 리처드의 어머니 옆에 앉도록 인도하시다니!

그리고 리처드의 어머니도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행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자리와 바꾸자고 하기에 그렇게 했지 뭐니까.”<sup>14</sup>

그렇게 많은 비행기!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뜨는데!  
그 비행기에 그렇게 많은 좌석이 있는데! 일년 중에 그렇게 많은  
날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컴퓨터가 무색하게도, 바로 오  
늘, 이 비행기, 이 좌석을 동시에 정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인가!

● 적시에 공급된 기적의 원조 물품

(Miraculous Provision in the Nick of Time)

유럽의 한 제약회사는 자이르, 난쿠티에 있는 밥 와트(Dr. Bob Watt) 의료 선교사에게 5,000 개의 IV(정맥 주사)용액을 보낼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는 있었습니  
다. 이 정맥 주사 용액은 라벨이 조금은 잘못되었어도 용기의 내  
용물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  
었습니다. 당시 난쿠티에서는 별 다른 필요가 없기는 했지만, 만  
기일이 훨씬 넘었는데 어찌해서 그 원조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지?

자이르까지 가는 길은 너무 험했습니다. 선적된 물품은 케냐와  
우간다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당시 우간다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  
문에, 그 물품이 간신히 통과하자 자이르의 국경이 폐쇄되었습니  
다.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난쿠티 지역에 콜레라가 퍼졌습니다. 수백 명  
의 환자가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탈진 상태의 위험에 이르기 도  
했습니다. 아무 것도 수입되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서 지역 제약  
회사는 무용지물이었지만, 주님께서서는 콜레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정맥 주사액 5,000 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의료 선교사 와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원조 약품을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부의 기름 한 병에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도 같았다. 그 약이 필요한 동안,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염병 치료가 마침내 매듭 되는 순간, 마지막 한 병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 ● 왜 그 선장은 항로를 바꾸었을까?

(Why Did the Skipper Change His Course)

케이프 혼(Cape Horn)의 황량한 바다는 파도가 거셌고, 선장은 고래잡이 선원에게 기수를 남쪽으로 하여 무섭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헤쳐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배는 진행을 거의하지 못했고, 고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선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람을 헤쳐 나갈 생각을 했지? 왜 바람을 등지고 진행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남쪽보다 북쪽에 더 많은 고래가 있을지도 몰라. 왜 필요 이상으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걸까?”

그는 뱃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쯤 후에, 선원이 외쳤습니다.

“뱃머리 앞을 보시오!”

거기에는 14 명이나 타고 있는 구멍 보트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타고 있던 배가 화재를 당해 구멍 보트에 옮겨 타고 10여 일이나 표류하면서, 구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고 나서 선장은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항로를 바꾸도록 하셔서 당신들 14 명을 구원케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sup>15</sup>

### ● 안전하기엔 너무나 가까운 거리

(Too Close For Comfort)

프레드 스탠리 아르노트(Fred Stanley Arnot) 선교사와 그의 안내원, 세토브(Setobe)는 달구지로 중앙 아프리카를 지나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길에서 벗어나서 수백 마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르노트는 불평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일행은 여행 나흘째 날, 15 마일(약 24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하다가,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숲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주 상쾌한 날이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피곤에 지쳐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세토브는 재칼이나 하이어나 같은 맹수를 막으려고 불을 계속 지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아르노트도 숲 속 어둠에서 무슨 소리라도 나면 깜짝 놀라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밤에는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닥쳐오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토브가 먼저 잠을 깨 보니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



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또 다시 맹수의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맹수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익숙한 안내원은 자신이 잠졌던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사자가 있음을 즉시 알아 차렸습니다. 한편 선교사 아르눗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창을 들고, 살며시 선교사에게로 기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그는 아르눗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바로 근처에서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소리에 오싹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눗이 누워 있었던 곳에서 4 야드(3.7 미터) 정도 되는 땅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면에 있는 구덩이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자신들의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날 밤부터 쉬었을 때는 틀림없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르눗은 세토브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구덩이 가장자리로 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렵 구덩이 옆에서 야영을 했으며, 지난밤에 무심코 미끼 역할을 한 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은 가지와 나뭇잎과 풀로 살짝 덮여 있던 구덩이 가장 자리에 이르자, 그들은 10 피트(3 미터) 아래에 갈기가 온통 덮인 사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높은 훌륭한 동물 표본이었습니다. 사자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으르렁거리며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당시에 사자는 웅크린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구덩이로 떨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세토브는 아르놏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손짓을 하고, 사자의 심장을 조심스럽게 조준을 하고 온 힘을 다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 사자는 목이 터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치며 구덩이 벽에 몸을 비벼졌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몇 분 후에 그 맹수도 숨이 거의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토브는 창이 손잡이를 잡으려고 땅에 납작 엎드리고 구멍 가장자리를 잡고 허리를 아래로 굽혔습니다. 재빨리 창을 사자의 몸에서 뽑아 올리고 나서, 다시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사자는 낮고, 울리는 신음 소리를 내면서 앞발로 마지막 공격 자세를 취하려다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sup>16</sup>

● 부시맨이 구출하러 오다  
(Bushmen to the Rescue!)

(앞부분에 이어서) 실제로, **프레드 아르놏(Fred Arnot)**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도 여행 중에, 아르놏은 **틴카(Tinka)**라는 노인 안 내원과 부족 사람들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식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틴카는 그들 앞에 있는 웅덩이의 물이 충분치 않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케레(Bukele)에 있는 것도 좋은 식수 공급원이었는데,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이 뜨기 전에 짐을 꾸려서, 무덥지 않은 아침을 최대한 이용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낮이 되자 그들은 완전히 지치게 되었습니다. 짐을 끄는 소들도 헛바닥을 힘없이 내밀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를 풀어놓고 8 마일쯤(12.9 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물웅덩이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동물들

도 그 같은 더위에는 달구지를 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통에는 물이 단지 몇 모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 물은 노인 안내원인 틴카의 통제에 따라 사람들에게 조금씩 배급되었습니다. 일행을 인도할 틴카가 선두에 서고, 다음에 아르נות, 그리고 탈진한 부족 사람들이 한 줄로 섰습니다. 참기 힘든 더위였습니다. 잠깐씩 불어오는 열풍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의 발바닥도 다 탈 지경이었습니다. 아르נות은 비록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별정계 달구어진 금속 막대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곧 아르נות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르נות이 틴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그의 입이 바짝 마른 탓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혀는 열기에 타 들어가는 듯했으며, 입술은 화상은 입은 듯 물집이 났습니다.

아르נות은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틴카 노인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멈추어 서서 친절하게 선교사를 부축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계속 가면서, 한 발 한 발을 겨우 끌면서, 작렬하는 햇빛에 눈을 다치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채, 비틀거리며, 기어가기도 하며, 앞서간 소의 자취를 따라서 발을 질질 끌며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아르נות도 너무나 혼미하여 기도조차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틴카는 초인과도 같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사막의 열기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르נות은 가물거리는 황야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본 것을 기억하고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에 겨우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 모래 바닥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의 수행원들의 검은 피부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틴카를 보았으나, 그 역시 얼굴을 납작 엎드린 채,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발이 쪼뼛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는 틴카 쪽으로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터질 것만 같았고, 목이 너무 말라서 숨쉬기조차 곤란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는 틴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워서 틴카를 모래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꼬꾸라져서 원주민 옆에 넘어져 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또 다시 그는 눈을 뜨고, 틴카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까이 돌려서 그 노인이 하려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틴카는 겨우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물... ㅁ-ㅈ-ㄹ 이 다 떨어졌소, 서-ㄴ-교-사-님.”

그 사람은 힘을 다해 한 번 미소를 짓더니만 곧 쓰러졌습니다. 선교사 아르눗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최후를 맞을 각오를 했을 때, 틴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떠-ㅎ-게? 당신의 하-나-니-ㅁ은 어디 있나요, 아르-노-ㅈ?”

“서-ㄴ-교-사-님, 우리는...지금...당신의 하-나-님의... 도움이...필요합니다.”<sup>17</sup>

아르눗은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의식 불명 상태로 끊어졌습니다.

이 때, 사냥을 하고 있던 부시맨들이 수평선 위에 뭔가 움직이

는 것을 감지하고서 그들 일행이 쓰러져 있는 쪽으로 다가온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영양 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쪽으로 희망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가시덤불만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은 그 시간까지 모래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다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급해졌습니다.

그 부시맨들 중에 서너 사람이 원뿔 모양으로 모래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9 피트(270 센티 미터) 정도를 파 내려갔을 때, 이 고마운 은혜를 베푸는 부시맨들의 구릿빛 피부에서 땀이 흘러 내렸습니다. 어떤 부시맨은 갈대를 베어서 뭔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시맨 지도자는 긴 갈대를 모래 구멍 바닥에 대고 차츰 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갈대를 가지고 교묘하게 또 연결하여 입에 물고 빨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허연 이를 드러내고서 만족한 듯했습니다. 그는 물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멍이에서 올라와서, 다른 사람이 건네준 거북 등껍질을 가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또 다시 그는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을 걸쳐 힘든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물이 갈대 구멍을 통해서 부시맨의 입으로 올라와서, 거북 등껍질 안에 받아졌습니다.

십분 정도 후에 진흙과 거품이 뒤섞인 물이 가득 담겨졌습니다. 그는 구멍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와서, 아르נות에게 걸어가서, 입에 물을 넣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때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아르נות은 그의 입술을 벌리더니만 물을 마구 마셨습니다. 물이 다 비워졌을 때, 그 지도자는 다시 구멍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열기 아래서, 그 부시맨들은 여섯 시간이나 오래 고생한 끝에, 모든 사람들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아서, 이제는 그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르눛의 모든 일행들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선교사, 틴카, 그리고 모든 일행들이 이제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 지도자는 자신이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너무나 지친 나머지 구덩이에 내려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인과 그 일행들이 믿어지지 않는 듯 감사를 표한 것을 기억하며, 미소 지으며, 쓰러져서 눈을 감고 이내 코를 골았습니다.<sup>18</sup>

부시맨들은 동이 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들의 물건을 챙기고, 선교사 일행들이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을 만족하게 바라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곧 그들은 고립된 기린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르눛과 틴카와 모든 일행이 잠을 깼습니다. 전 날 겪은 일을 기억하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옆에 서 있던 틴카가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르눛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틴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했을 때, 산들바람이 물구덩이 근처의 모래 언덕 위로 스쳐 지나가며 거북 등껍질을 살며시 흔들어 댔습니다.<sup>19</sup>

## ● 정확한 금액

(The Exact Amount)

아놀드 클락(Arnold Clarke)은 중국 서부에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자, 그는 여전히 중국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해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50 세 중반에, 그의 차 폭스바겐 밴의 상태가 다 된 것 같아서 같은 모델의 다른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필요한 금액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딱 맞는 금액을 공급해 주시기를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밴이 주님이 골라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게 되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미국 북부에 있는 모임으로부터 3,000 달러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놀드가 휴가 중에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재산 정리를 해서 물질적으로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차가 필요하시다면 이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밴을 구입하려고 시내로 갔습니다. 마침, 자동차 딜러는 아놀드가 바꾸고 싶어하는 밴이 딱 한 대 있는데, 가격이 3,266 달러 48 센트라고 했습니다. 아놀드는 그 딜러에게, “3,000 달러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면 좋겠소” 라고 제의했습니다.

“아뇨,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주님

게 딱 알맞은 양만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로 감동도 없이, 그 딜러는 말했습니다. “차를 당신한테 팔고 싶기는 한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일주일간의 기간을 줄 테니 나머지 금액을 구해 보시오.”

주말이 되자 딜러가 전화를 했습니다. “돈을 구했습니까?”

아놀드는 254 달러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2 달러 48 센트가 부족했습니다.

“됐습니다.” 딜러는 2 달러 48 센트를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정확한 양을 공급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놀드의 부인이 듣고 있다가, “여보, 제가 2 달러 48 센트를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참다못해 딜러가 말했습니다, “다시 3 일 더 기한을 줄 테니 돈을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소.”

3 일 후에, 아놀드는 뉴저지에 있는 아홉 살 된 소녀로부터 커다란 갈색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뉴저지 모임에서 아놀드가 전했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헌금을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동전을 붙여서 보내왔는데, 정확히 2 달러 48 센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차를 구입했으며,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봉투는 아놀드가 그것을 받기 3 개월 전



의 날짜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아놀드가 기도를 시작하기 두 달 전에 이미 돈을 부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사 65:24).

### ● 러시아에서의 특송 배달

(Very Special Delivery in Russia)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오래 전의 사건과 근래의 사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과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 크거나 작은 사건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매우 실제적이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저의 문서 사역의 과정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후 1993년 9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필자, 윌리엄 맥도날드(William MacDonald)는 한 통의 팩스를 받았는데, “신자 성경 주석(Believer’s Bible Commentary)”, 신약편 세 권을 급사를 통해서 시베리아 노보시베르스크에 번역자에게 보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 저의 친구 데이브 존슨(Dave Johnson)이 다음날 밤 모스크바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그의 짐이 이미 중량 제한에 육박해서 염려는 되지만 일단 한 번 가져가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우리는 세 권의 책(무려 1200 쪽이나 되는 분량)을 그의 가방 속에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겨우 가방을 단았습니다. 탑승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금요일에 그 책은 모스크바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책이 시베리아까지 2,000 마일(약 3,219 킬로미터)을 어떻게 더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브(Dave)와 제프 리트너(Jeff Rittner)는 러시아에 DHL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으로 가서 전화 번호라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헛수고나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바로 그 때, 그들은 길거리에서 DHL 트럭을 보았습니다. 데이브는 급히 운전사에게 그 책을 노보시베르스크에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말하기를, “저에게 직접 주세요.” 그는 급히 배달 주문서를 써 주면서, 이를 내로 배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찬장이 텅 비었지만, 길지 않은 기간  
(Bare Cupboard but not for Long)

반린(Van Ryn) 가정은 아버지 오거스트(August)가 미시간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가정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송금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코트 주머니에 편지를 넣어 두고서, 옷을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집안에는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아침을 위한 음식은 있었지만, 점심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그랬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편지가 왔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은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다시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11 시쯤 되어 누가 대문을 노크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배달원이 식탁 위에 커다란 상자 네 개를 내려놓았습니

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로 들어와서 돈을 다 내고 여기에 배달해 드리라고 했어요. 다 계산된 것이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글쎄, 전혀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고고서, 그녀는 가게로 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혹시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모든 이웃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인에게 물어 보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상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상자를 보내도록 하신 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보고서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평상시에 주문하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 동일한 식품,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상표. 어떤 낯선 사람이 당신이 평시에 애용하던 똑같은 품목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 똑같은 시리얼, 치즈, 땅콩, 복숭아, 밀가루, 버터 등!

### ● 기적의 토마토 (Miracle Tomatoes)

아시는 바와 같이, 임산부들은 별난 음식이나 아이스크림과 피클을 섞은 것을 가끔씩 찾습니다. 임산부들의 체내에서 그들의 생애 동안 특별한 시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려는 신호를 내

보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신한 여자에게서 보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 존 알렉산더 클락(John Alexander Clarke)의 부인은 아프리카에서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녀는 고열이 났는데, 어떤 약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허약해진 상태에서, 그녀는 토마토를 계속 먹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존이나 그의 부인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결코 토마토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목숨을 구해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곤 했습니다, “익은 토마토 몇 개만 먹어 봤으면... 토마토...”

어느 날 클락이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클락은 병간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싫어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원주민 여자가 토마토 세 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만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 여자는 백인이 몇 달 전에 자기에게 씨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는 했는데, 아무도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개만 가져와서 이 선교사에게 보여주며 두고 갔습니다.

클락의 부인은 이 토마토를 먹고 나서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후에 의사가 도착해서 필요한 처방을 했습니다.

토마토가 나지 않는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신기한 토마토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 ● 저자와의 독대 (Meet the Author)

어떤 자매님의 선교 현장은 런던 히드로 국제 공항 (London's Heathrow International Airport)이었습니다. 매일 그 자매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승객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영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그 자매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 자매님이 비전을 갖고 계속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님은 대합실에서 비행기 여승무원의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 자매님은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승무원은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 승무원은 이 특별한 순간 성령에 의해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 여승무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근본 원리들—말씀, 기도, 건전한 교회 생활—을 훈련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승무원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쉽지만 저는 지금 가 봐야 해요.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30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개인 전도자는 재빨리 가방에서 프란시스 셰퍼(Francis Schaeffer)가 쓴 복음 서적 한 권을 꺼내 주면서 말하기를, “비행기 안에서 조용한 시간에 이것을 읽어보세요.”

몇 시간 후에 그 여승무원은 비행기 뒷좌석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녀의 옆 통로에 서 있는 한 남자 분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대합실에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제 이름은 프란시스 셰퍼(Francis Schaeffer)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이 새로운 신자로 하여금 그 책의 저자이신, 베테랑 성경 교사를 직접 만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도록 하시다니!

### ☐ 맺는 말

(Conclusion)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참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분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허락하심으로, 사단이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프레더릭 화이버(Frederick Faber)는 이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불행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선은 불행일 뿐이다.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나쁘게 생각되는 모든 것도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신 구원에서나, 때로는 육에 갇히게 되는 경우나 질병과 죽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가까스로 육에서 탈출하게 된 반면,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복잡미묘한 삶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을 찾기 어려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 어린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롬 8:28).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되며,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도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실과 심판의 실로  
 시간의 망을 주께서 짜시네!  
 그래요, 슬픔의 눈망울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빛나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찬양하리,  
 놀라운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리.  
 영광이 넘치는 임마누엘의 땅에서는  
 주께서 만 왕의 왕으로 관을 쓰시리라!  
 - 안네 로스 카즌(Anne Ross Cousin)-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인 찰스 스펀전(Charles Spurgeon)은 “하나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만 연출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이 악에 빠진 것, 모든 민족들의 범죄, 모든 왕들의 사악함, 전쟁의 잔인함, 질병으로 인한 무서운 형벌, 이 모든 것들도,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수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 궤도를 따라 돌게 하시듯이, 보트 뒤로 뿜어지는 물보라의 궤적도 정하시며 ; 밤하늘의 별자리가 저마다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듯이, 키질하는 자에게서 나는 왕겨 가루의 방향을 정하시며 ; 악질이 진행되는 것을 예정하시기도 하듯이, 장미 봉오리 위에 진딧물도 기어다니도록 허락하시며 ;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게 허락하시듯이, 포플러나무에서 시든 잎이 떨어지는 시간과 방향을 완벽하게 조절하시며 ; 햇빛 속에서 난무하는 먼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입자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실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중간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기뻐신 뜻을 따라 능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하지 못하는 신, 자기의 뜻이 억제 당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며,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떠한 신도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sup>20</sup>

또 다른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는 그의 삶에서 깊은 고난의 시절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잘 알려져 있는 애송시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참 신기한 방법으로 운행하시네  
주님의 행사는 너무 기이하도록  
주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폭풍을 타시는도다

그대 두려워하는 성도여, 새로운 용기를 지닐지니  
먹구름이 그대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 그 장막을 깨뜨리고  
그대 머리 위에 축복으로 바뀌리!

행여 마음 한 구석에라도 주님을 저주하지 말며  
오히려 항상 자비하신 주님을 굳게 믿을지니  
잠깐 고통을 주는 듯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뒤에는  
주님께서 환한 미소를 감추고 계시네!

주님의 모든 목적은 속히 응할지니  
때가 차면 각각 그 덮개가 열리리라  
설익은 열매는 쓰지만  
완숙된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가

불신에 눈 먼 자는 눈을 밝히 뜨고  
일점일획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주 하나님은 완벽한 연출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드라마!



“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업위하시도다  
(시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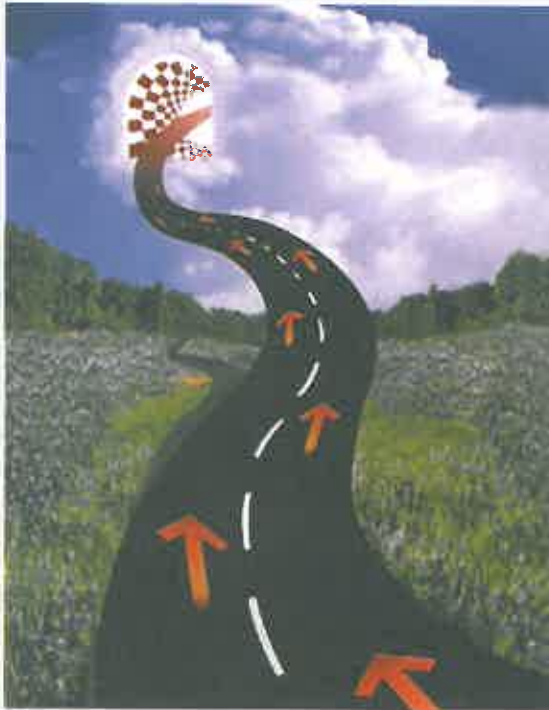
”



## 제3부

#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THE WONDERS OF GOD IN REDEMPTION)



# 구속(救贖)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움

(THE WONDERS OF GOD IN REDEMPTION)

## ☒ 개 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그분의 놀라운 신비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영적인 창조물에도 그분의 놀라운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소년 소녀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데에는 영원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J. H. Jowett는 영적 창조에 나타난 신비가 물질적인 창조에 나타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는 자연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



거듭난 한 영혼이 아름다운 봄날보다 훨씬 더 놀랍다. 햇별이 내리찍는 아름다운 정원보다는 변화된 얼굴에 더 깊은 신비가 있다. 잿더미 위에서 자라는 한 송이의 꽃보다 죄로 인해 메말라 죽었던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경이롭다. 참으로 경이로운 신비를 보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서 이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혼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깊은 경외와 찬미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sup>1</sup>

거듭남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그 자체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代贖)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은 마치 눈송이가 서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야 구원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비천한 신분에서 있다가, 또 어떤 이들은 성직자의 신분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죄에 대한 깨우침이 사자의 큰 울음소리처럼 극적으로 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미미하게 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맨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주님께 나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없이 많이 듣다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다양하게 구원받은 배경 뒤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오래 전에 주님께로 가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탕자 같은 자를 위해 무릎이 닿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께 나아와 도움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 즉 병이나 소경, 사랑하는 자의 죽음, 귀신들림 등과 같은 일 때문에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있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 ● 기쁨을 찾은 히피족

(The Hippie Who Became Happy)

이 히피는 죽기 위해 팜 스프링스(Palm Springs)에 있는 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몸은 술과 마약 그리고 난잡한 성생활로 인해 폐인이 다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 난지 10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 젊은 전도자가 굴 입구에서 젊은이를 보며, “제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히피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후, 그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굴을 떠났습니다. 폐인이 된 몸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신을 보여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서 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 7:17).

### ●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시크교도, 썬다 싱

(Sundar Singh, The Sikh Who Sought And Found God)

썬다 싱(Sundar Singh)은 인도의 펀잡(Punjab)주에 있는 시크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sup>2</sup> 그의 어머니는 종교심이 있는 시크교도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종교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국립학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썬다 싱은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14 살이 되어갈 즈음에 그

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친 소년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고 성경 읽기를 거부하며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국립학교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학교를 부수고 선생들을 내쫓는데 앞장선 갱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방전도자들에게 돌질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찾아가 오물을 뿌려 모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그 아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썬다 싱은 말라리아에 걸려 풀이 죽은 다음에 기독교 학교에 찾아와 그를 다시 받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옛날보다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와 그의 몇 친구들은 신약성경을 집에 가지고 와서는 불태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리스도인들의 책을 불태우다니 너 정신이 나갔구나. 너의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책은 좋은 책이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에 평강을 찾지 못한다면 자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는 3 일을 방황한 후, 하나님께 "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안으로 당신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만일 7 시간 안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라호레(Lahore)로 가는 다음 기차에 머리를 깔려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날이 어둡기 전에, 그는 그의 아버지의 방안으로 들어서며 그의 아버지에게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꿈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방에 오셔서 힌두어로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알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이것을 취하지 않겠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제 오직 주 예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가 성경을 태운 것이 이제 겨우 3 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썬다 싱은 똑바로 서서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이제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썬다 싱은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그가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를 결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 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렘 29:11-14상).

### ● 성경을 거부했던 자들의 회심

(How Some Bible Critics Were Won)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은 각자 다르지만, 다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

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만일 성경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자로 쓰여 있거나, 음성으로 전해지거나, 온전한 성경이던가, 작은 전도지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약 1:18).

해리 덕슨(Harry Dixon)이 매사추세츠의 기술학교에 있을 때에, 그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학생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해리를 조롱했습니다. 해리는 그들의 조롱에 답할 기회를 찾다가 그가 그의 조롱의 강도를 더해갈 때, 그에게 성경을 주며 “여기 이 성경에서 흠을 찾아봐. 성경을 읽어본 적이나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방 친구는 자신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다 읽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 앞에서 다시는 성경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한 번 읽고, 그의 마음에 있는 몇몇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는 했지만 마음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다시 한 번 읽었는데, 앞서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의심은 사라졌으며, 그는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의 흠이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리틀톤 경(Lord Lyttleton)과 길버트 웨스트(Gilbert West)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연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웨스트는 그의 예리한 법률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고, 리틀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책으로 써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보지 않았던 성경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들의 불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공부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변호하는 아주 고전적인 책을 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길버트가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이었고, 리틀톤 경은 “사도 바울의 회심(The Conversion of St. Paul)” 이란 책을 썼습니다.

프랭크 모리슨(Frank Morison)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대해 아주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7 일간에 대해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Who Moved the Stone)” 라는 그의 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을 전하는 논문이 되고 있습니다.

첫 장에는 그가 맨 처음 의도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쓰기를 거부했던 책(The Book that Refused to be Written)”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루이 월러스(Lew Wallace)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달변가인 무신론자 로버트 인저솔(Robert Ingersoll)이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불후의 명작을 써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애리조나의 전 관리였던 그는 집에서나 여행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빛낼 역사에 남는 불후의 명작을 만들기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을 써내려 가다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실존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러스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월러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내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아침에 이르러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치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내 아내를 깨우며, 아내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내게 ‘오, 루이(Lew), 나는 당신이 그 책(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책)을 쓴다고 할 때부터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주님을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라고 말했다.”<sup>3</sup>

루이 월러스(Lew Wallace)는 계속 글을 썼고, 그가 쓴 책이

바로 “Ben Hur, a Tale of Christ(벤 허,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 그리스도께로 향한 풍향계  
(The Weather Vane That Pointed to Christ)

때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주님을 찾는 것 같지 않는데도,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터 젠킨스(Peter Jenkins)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대륙을 횡단하며 앨라배마의 모빌(Mobile)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아주 거친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파티에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복음 전도 집회 안내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전에 그와 같은 모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 집회에 가는 것을 “예수당에 입당”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마치 풍향계처럼 안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제임스 로비슨 전도 집회(James Robison Crusade)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큰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러한 곳에 앉아 있는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이나 몇 장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 설교자가 강단에서 우렁차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피터는 그 키가 크고 텍사스 풍의 터프한 인상을 주는 설교자를 보며, 그에게는 “전도자보다는 차라리 달라스 카우보이즈

(Dallas Cowboys) 미식축구팀의 수비수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초청했습니다.

약 삼백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피터도 끼어 있었습니다. 로비슨(Robison)은 강대상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피터는 입을 열어 “예,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로비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그들의 결정을 확인시켰는데, 피터는 그의 결정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나중에 피터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전에는 가져보지 못한 안도감과 확신, 그리고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거친 파티에 가지 않았다. 나는 내가 놓친 파티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다가 마침내는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바람개비같이 요동치던 내 영혼이 영원히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분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 진주만에서 천국까지  
(From Pearl Harbor to Paradise)

1941 년도에 진주만(Pearl Harbor)을 공격했던 일본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미쯔오 후지다(Mitsuo Fuchida)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일본 전투기 조종사는 미 해군을 성공적으로 공습하고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도쿄 본부로 작전 성공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태평양에서의 싸움은 승리를 거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곧 반격을 가했고, 일본은 이를 방어했으나 머지않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 폭격으로 인해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이었던 후지다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미국을 전쟁 범죄자로 고소하기 위해 그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잔악하게 한 일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미국에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쟁 포로들에게 잘못된 일보다는 일본인 포로들을 방문한 한 미국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일본인 포로들에게 사탕과 과자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가져다 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친절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우리는 당신의 적인데 왜 전쟁포로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녀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그 선교사 부부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그 부모의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본인 포로들에게 그녀의 부모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쯔오가 찾는 증거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았던 것은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되풀이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쯔오는 신약성경을 한 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읽어보았지만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를 읽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즉시 필리핀에서 일본군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 부부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쯔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969 년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까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s that Wouldn't Die)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어떤 사람들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고, 또한 뜨거운 햇빛과 비를 맞으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의 기다리심이 수년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D. L 무디(Dwight L. Moody)는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잊지 못할 아주 좋은 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가 막 끝났을 때, 한 사람이 극히 흥분된 상태로 그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저의 집을 떠날 때, 저의 어머님께서 제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는 독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교회는 나가겠다고 저의 어머니에게 약속은 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 새로운 거처에서 살림살이를 정리한 후,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제 가방 안에 성경책을 넣어두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6: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다 표를 해두셨습니다.

제가 이사하고 나서 그 첫 주에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6:33절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걸길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저는 다른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날 말씀도 마태복음 6:3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저를 좇아다니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분명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지만, 저는 다음 기회에 주님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주일날 교회에 참석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날에도 어김없이 설교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6:33절이었습니다. 그날 제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고,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주님을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거절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그 후 저는 저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 년 동안을 교회에 참석해 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마태복음 6:33절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곳에 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디는 그에게 아직도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그 날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40 년간이나 지속되었는데, 그 동안 그의 구원을 위한 그의 어머니의 기도도 계속 되었습니다.

### ● 결코 우연일 수 없는!

(Incredible Coincidence)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재치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만일 우리가 조지 커팅(George Cutting)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지 커팅은 정직하고 그 인격이 고결하며 전혀 과장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조지 커팅을 그의 책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책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Safety, Certainty, and Enjoyment)”은 잘 알려진 책입니다.

어느 날 조지 커팅은 영국의 어느 조그마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외쳐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외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지만, 커팅은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오는 부담감대로 요한복음 1:29절을 크게 한번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다시 외쳐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6 개월 후에 그는 그 동네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집에 도착해서 그 여인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구원받아 이제는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6 개월 전에 자신이 죄로 인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주님에게 도와 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어디에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이것이 만일 주님의 음성이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곧 바로 다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는 음성이 들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일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한 조지 커팅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 형식에 매이지 않은 전도  
(Unconventional Evangelism)

토마스 빌네이(Thomas Bilney)는 늘 휴 래티머(Hugh Latimer) 신부의 설교를 들으러 가곤 했지만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꼬마 빌네이(Little Bilney)”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성경말씀을 알며 어느 정도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래티머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래티머의 설교를 들으며 그의 설교에 무엇인가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지식 전달에만 그치고, 영혼에는 호소하지 않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지식은 전달했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래티머는 진지했고 정직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네이는 래티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래티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신이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는 기회가 왔는데 래티머가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빌네이가 다가가 “래티머 신부님, 제가 신부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래티머는 으레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주 예수님께 대한 믿

음을 고백했습니다. 빌네이는 자신이 어떻게 디모데전서 1: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니라” 는 말씀을 통해 평강을 찾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래티머는 그 말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큰 감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도 빌네이가 말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영적 갈증과 굶주림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때에 래티머는 빌네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신부가 오히려 고해자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빌네이는 호주머니에서 자기 영혼에게 평강과 위로를 가져온, 자기 영혼을 구원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을 찾았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래티머의 마음에는 전에는 비치지 않았던 밝은 빛이 비치었습니다. 빌네이는 래티머의 마음에 있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빌네이와 래티머는 여러 부류, 다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sup>5</sup>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인하여 화형을 당한 래티머 주교(Bishop Latimer)입니다. 그는 화형 당하기 직전에, 함께 순교했던 리들레이 주교(Ridley)에게,

“친구여, 우리는 오늘 날 ... 이 영국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을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 영혼을 일깨우는 충격적인 전도

(Sledgehammer Evangelism)

근래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것으로, 형식에 매이지 않는 전도의 또 다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큐퍼 박사(Dr. Abraham Kuyper)**는 레이던 대학(The University of Leiden) 신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당시의 교회의 상태처럼 차갑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스드(Beesd) 지역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그가 그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 한 여인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아주 솔직하게 “큐퍼 박사님, 박사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박사는 자기의 거짓 고백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을 마음으로 믿은 후, 능력 있는 설교자요, 교육자, 저술가, 그리고 정부 관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4 년 동안이나 네덜란드의 총리로 일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렘 23:29).

●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루이스  
(From Atheism to Christ)

루이스(C. S. Lewis)는 영국 성공회의 전통 아래서 자라기는 했지만, 십대에 이르러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공부는 세계 제 1 차 대전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여전히 무신론자로 철학과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24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는 그의 강한 철학이 조금씩 후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반에서 가장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며 그 인격이 뛰어난 네빌 코힐(Neville Coghill)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나중에 코힐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루이스는 그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저술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는데, 조지 맥도날드(George MacDonald)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루이스는 길버트 체스터튼(Gilbert Chesterton)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다른 많은 친구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루이



스의 지, 정, 의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The Great Fisher of Men)’ 이신 주님께서 낚시줄을 던지고 계셨으며, 루이스는 자기의 입이 이미 그 낚시에 꿰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sup>6</sup>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사냥개(Hound of Heaven)’<sup>7</sup> 가 그를 쫓기 시작했고, 그를 잡기까지는 중단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친구들의 말에 루이스의 무신론이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영이라고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정도만으로도 크게 굽힌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닥 교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스터톤이 쓴 “영원한 마음(Everlasting Mind)”을 읽으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제외하고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상한 모순이었으며, 스스로 완고한 고집에 말려든,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1926 년도에 누구보다 무신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루이스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인 주 예수님께서 한 때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이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완고한 마음이 부서져 갔습니다.

그 즈음에 루이스는 자기의 죄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저는 저를 경악케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짐승 같은 정욕, 미친 야망,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 그리고 거머리처

럼 달라붙는 증오를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sup>8</sup>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29년에 옥스퍼드 막달라 대학(Magdalen College) 기숙사의 그의 방에서 그가 “그렇게도 만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의 조용하고 끈질긴 접근”을 느꼈습니다.<sup>9</sup> 그 후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영국에서 가장 맥없고 내키지 않는 회심”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sup>10</sup>

그는 자기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기와 같은 자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적개심이 가득하여 버둥거리며 발로 내차고 도망갈 곳을 찾는 탕자를 하늘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신 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sup>11</sup>

루이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다음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서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있었을 때, 그렇게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던 참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루이스의 구원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회심하기를 원하지 않은, 은혜를 구하지 않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영원한 자비의 팔로 안으셔서, 진지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어린양이신 주님을 따르게 만드신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장식되어 있다”고 한 스펀전의 말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sup>12</sup>

● 무심코 복음을 엿듣고 구원받음

(Saved by Overhearing the Gospel)

때로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때로 전도자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는 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항공모함 선상의 한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다른 선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1).

● 지옥행이 아닌 천국행

(No Longer Hell Bound, But Heaven Bound)

에릭(Eric)은 종교적인 가르침은 받지 못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웃집에 사는 조그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늘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을 에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성경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누군가가 늘 그의 주위에 만화로 그런 전도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에릭은 지옥에 대해 읽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니다.

하루는 에릭이 그의 동생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을 때에, 한 소녀가 다가와 “너희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동생들은 소녀를 비웃으며 그냥 지나갔지만, 에릭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곧 술, 마약, 도둑질로 경찰서를 드나드는 악몽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군에도 들어갔지만 그리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주 좋은 오토바이를 사서 화가에게 부탁하여, 그의 오토바이의 옆에 사단의 모양 —뿔과 꼬리, 갈고리 그리고 온갖— 그림을 그려 넣고, “지옥행(HELL BOUND)”이라고 써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글이 당시의 그에게 아주 적합했는데, 에릭은 그의 여자 친구에게 자신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내를 미친 듯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동료 친구가 늘 그를 학교에 있는 성경공부 모임에 초청을 했지만, 그는 언제나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에 그곳에서 전한 말씀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가 끝날 즈음에 한 젊은이(나중에 에릭이 속한 교회의 장로들 중에 한 분이 된)가 그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에릭은 오토바이를 팔려고 노력했으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그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에릭,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옥행이라고 쓰인 오토바이를 그냥 그대로 팔려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에릭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곳에 쓰인 글씨와 혐오스러운 그림들을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오토바이가 처음 새 것을 샀을 때처럼, 그 그림과 글씨를 깨끗하게 잘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다음날 그 오토바이가 에릭이 원하는 값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릭은 더 이상 지옥행(HELL BOUND)이 아닌, 천국행(HEAVEN BOUND)의 삶을 살았습니다.

● 요새에서 보초 근무중 구원받음  
(Caught Off Guard in Gibraltar)

스필전(Spurgeon)은 우리들에게 한 지하 요새의 통로에서 보초를 섰던 두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하 통로 한 쪽에서 보초를 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한 쪽에서 보초를 선 사람은 그 영혼이 깊은 번민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터널은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한 쪽에서 소리를 지르면, 터널 속에서 소리가 울려 반대쪽에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군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찾지 못하여 그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입구에 있는 군인은 같은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

관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암호를 물었습니다. 당황한 군인은 영겁결에 암호를 말한다는 것이 그만 “The Precious Blood of Christ(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군인은 곧 그 날의 암호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굴 안에서 울려 반대편에 있는 군인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스펠전은 그 날밤 그 사람이 지하 통로 반대쪽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가 나중에 성경을 힌두어로 훌륭하게 번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sup>13</sup>

### ● 선한 행실을 통한 전도

(Won Without a Word)

우리는 때로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아내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주님께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선한 간증을 언제 어디서나 나타낼 수 있다는 예를 군대 입영식에서 **버트 그레이브스(Bert Graves)**의 경험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입영식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연병장에 있는 농구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농구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딕 케글러(Dick Kegler)** 라는 사람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딕은 버트 그레이브스를 지켜보면서, 버트는 말하는 것도 온순하고, 화를 내지 않으며, 게임에 있어 아주 공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딕이 그에게 다가와서, “버트, 당신은 다른 사람들

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인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트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덕은 그날 밤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 ● 한 영혼을 구원한 도둑맞은 성경

(The Unsolved Case of a Stolen Bible)

하나님의 열차는 언제나 정시에 움직이지만, 어떤 여행은 수년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주님께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우여곡절과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 주님께 돌아옵니다.

몇 년 전에 어네스트 타담(C. Ernest Tatham)과 몇 사람의 젊은이들은 뉴 브룬스위크(New Brunswick) 지역에서 스투어트(A. H. Stewart)와 전도집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스투어트는 그의 전도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 아이언 사이드(H. A. Ironside)로부터 받은 성경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9 월 2 일 날 성경 여백에다 “우리는 오늘 뉴 브룬스위크에 있는 캠벨톤(Campbellton)에서 출애굽기를 다 읽었다”라고 쓰고 밑에 각자의 서명을 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온타리오의 구엘프(Guelph)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도둑이 들어 그의 차에 있는 것들과 그의 가방 —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의 성경도 함께 — 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하였으나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8 년 후에 타담은 구엘프에서 아주 먼 곳에서 전도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교회의 집회가 끝나자, 하비(Harvey)라는 조그마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윌버 맥노튼(Wilber McNaughton)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윌버 맥노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녀는 ‘아, 저런!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쩌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교회와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술이 취해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늘 그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는—놀라게도—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세요? 그의 친구가 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그 성경을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 윌버에게 주었대요.’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여인은 이 전도집회기간 동안에 윌버를 꼭 한 번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어느 날 밤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윌버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친구가 어떻게 그에게 성경을 주었으며,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읽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관심이 없었고 또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내가 모르게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성경을 계속 읽어갈수록 그의 관심은 높아졌고, 그의 마음속의 갈증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가 요한복음 14 장을 읽을 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 오셨고, 그는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그 날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 자국 난 주님의 손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주님이 그에게 있어 실질적인 분이 되셨으며, 그는 그의 영과 혼 그리고 몸 모두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날밤 그는 그의 방에 혼자 있었는데,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옛날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월버가 그의 손에 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성경이 월버가 읽고 구원받은 성경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 성경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 여백에 많은 참고 노트와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다가, '우리는 오늘 뉴 부룬스위크에 있는 챔벨톤에서 출애굽기를 다 읽었다' 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저의 가슴은 놀라움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세요. 저는 뉴 부룬스위크에서 스튜어트가 성경에 이 글을 쓸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너무 놀라서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스튜어트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기를 통하여 들려오는 환호성을 듣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잃어버린 성경을 찾는 일을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그의 성경은 그의 집에서 150 마일(241 킬로미터)

이나 떨어진 마을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희귀한 일을 목도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맥노튼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책을 원 주인에게로 돌려주었고 다른 좋은 성경책을 대신 받았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 되돌아 온 성경

(Another Bible That Wouldn't Die)

맥케이(W. P. Mackay)가 스코틀랜드의 그의 집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는 성경 안쪽에 사인을 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또한 그곳에 성경구절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맥케이는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의 무신론에 맞는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음란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 그는 술을 사기 위해 그에게 준 성경을 전당포에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문란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로서 성공했고, 에딘버러(Edinburgh)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근무시간에 심하게 다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맥케이 의사는 그 환자의 평온함과 밝은 표정에 놀랐습니다. 맥케이는 먼저 환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안

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맥케이는 그 환자에게 “길어야 세 시간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저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의 하숙집에 가서 그의 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맥케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의 책을 가져다주라고 말하고 회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평온한 모습이 떠올라 그의 마음에서 이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맥케이는 병실로 돌아와 간호원에게 그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원은,

“그 환자 조금 전에 죽었어요.”

“그 환자가 가져다 달라고 한 책이 어디 있지?”

“그의 베개 밑에, 그가 두었던 그대로 있어요.”

의사는 그의 베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베개 밑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때 성경책 앞장이 열리고, 맥케이는 자기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가 쓴 성구가 그곳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책은 맥케이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집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전당포에 맡겼던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맥케이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의 사무실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후에 맥케이는 “은혜와 진리(Grace And

Truth)”라는 책을 썼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 마약 중독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으로  
(The Conquest of Addiction)

크리스(Chris)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 일 동안 계속되는 파티에 초대되어, 자포자기 상태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충동심은 그날 밤에 그의 생을 마감할 뻔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야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마리화나를 팔기도 하고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마리화나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코카인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그 사업을 시작하여 번창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반 파운드씩이나 팔았고, 그 자신 또한 마약에 깊이 중독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약에 깊이 취한 상태로 그의 아버지 집에 갔는데, 경찰이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화장실로 가서 변기 속에다 17,000 달러(2 천만원)어치도 더 되는 코카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며, 집에 있는 경찰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에는 경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편집병(paranoia)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는 헛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10,000 달러(1200 만원) 어치나 되는 코카인을 버리

고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 집으로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의 동생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집에 와서 그의 동생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성경공부에 참석하자고 권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참석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평상시 그는 그러한 모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라고 부르는 노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씩 조용히 그곳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데,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요한일서 5:13절을 펴서 그에게 그 곳에 크리스(Chris)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크리스(Chris)에게 이것을 쓴 것은 크리스(Chris)로 하여금 크리스(Chris)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며, 크리스(Chris)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크리스(Chris)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8-9절 말씀, “크리스(Chris)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크리스(Chris)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밤 크리스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10 달러짜리 어설픈 약속

(A Ten Dollar Promise)

한 전도자가 어떤 농부를 만나,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 날이군요? 그렇지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농부는 “그래요. 참 좋은 날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매일 당신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시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 참 이상하군요. 당신의 아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야 원하면 기도할 수 있겠지요.”

“당신의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누가 막겠어요?”

전도자는 “제가 당신과 한 가지 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당신에게 10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약속을 하고는 손쉽게 번 10 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 그날 자기가 약속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약속

을 한 것이잖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나 위협이 닥쳐 와도 기도하지 말아야 하잖아. 죽음이 닥쳐올 때에는 기도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심판대에 서게 될 지도 모르고, 그 때에는 어쩌면 기도하고 싶을 것인데...”

그는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커져서 나중에 그의 죄의 짐을 생각하게 되었고, 죄의 짐이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귀가 당신을 유혹했군요. 당신은 10 달러에 당신의 영혼을 팔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를 심히 근심케 하여, 그는 며칠 동안이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에 그 전도자가 그 근처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농부가 자기를 찾아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날 밤에 그 농부가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 밤에 전도자가 전한 메시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8:3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집회가 끝나자 농부는 한 손에 10 달러를 들고 강단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10 달러를 내밀며, “이것 도로 받으세요. 이 돈 도로 받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전도자는 “왜 그러세요?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당신은 평생에 기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10 달러를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저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

면 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그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또 한 사람의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 구원의 확신을 준 예상밖의 성경 구절  
(An Unlikely Verse Answers an Absurd Objection)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16절이나 5:24절, 그리고 로마서 10:9절과 같은 전도와 연관된 말씀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살아 있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어떤 할머니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던 어느 맹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맹인 성도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복음과 연관된 모든 유명한 말씀들을 그 할머니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속의 원리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를 방문하기 전에, 주님에게 전에 자기의 전도가 얼마나 효과가 없었던 가를 아뢰었습니다. 그는 “주님, 주님께서 제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이제 그 할머니에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다음의 성경 구절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 6:17-18).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할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더 말씀드려 보았지만, 다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주님께 그냥 그 말씀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할머니에게 복음을 더 이상 알아듣기 쉽게 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다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성경구절을 주시기를 구했다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子女, my sons and daughters)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얼굴이 밝아지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왜요?”

“당신이 내게 지금까지 말한 성경 말씀들은 모두 남자들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내게 오는 자(him)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내 말을 듣는 자(he)…’ (영어로 him, he는 남자를 말함—역주).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자녀(子女)라고 하면 딸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말한 후, 샌더스는 “여인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녀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지만(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자는 그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sup>14</sup>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 무용하는 것이 꿈인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댄스 홀에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댄스 홀에서 그녀의 남자 친구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춤을 추다가 우연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암송했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 성경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13절 말씀이 그녀에게는 큰 깨달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렘 2:13).**

그녀는 자기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아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춤추던 곳을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 은혜의 트로피, 멜 트로터  
(Mel Trotter, A Trophy of Grace)

멜 트로터(Mel Trotter)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랜드 태생인 그는 아버지로부터 말을 잘하는 특성을 물려받았으며, 여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어린 열 일곱 살의 소년이었을 때에도, 술시중을 하는 바텐더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멜(Mel)은 소란스러운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으며, 무엇이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영리했고 매력적이었으며, 대부분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는 동안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발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코올 중독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의 알코올 중독의 굴레는 그의 생활을 망쳐놓았으며, 그의 굳은 결심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시 상태가 좋을 때, 그는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은 그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보험 외판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때 그들은 아들을 낳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로 잡아보고자 자신의 집을 술집에서 아주 먼 곳, 가장 가까이 있는 술집이 약 15마일(24 킬로미터)이나 떨어진 시골에 있는 집으로 이

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너무나도 술 생각이 나서 말을 타고 나가서 술집에서 말을 주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추운 날 걸어서 집에 와야 했지만, 도중에 취기가 짝 가셨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는 다시 건전한 생각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이오와(Iowa) 주에 있는 다벤포트(Davenport)로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때로 집에서 나와 며칠씩 있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에서 나온 후 약 10 일 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 로티(Lottie)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아침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멜은 큰 슬픔으로 인해 마음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의 관 뚜껑을 열고 죽은 아이를 보며 아이와 그의 아내 로티에게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오후,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약 두 시간 후에, 술이 아주 심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관속에 있는 그의 아이의 신발을 벗겨 그것을 팔아 술을 마셨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로티는 상황이야 어떻든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편 멜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는 완전히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이 도시 저 도시를 헤매며 흠치고 구걸하며 술을 마시기 위하여 자신의 신발을 팔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또한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어느 1 월의 추운 겨울 날,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로 시카고에 있는 트럭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살 돈을 구걸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술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술집 종업원이 그를 밀어내며, 미시간 호수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찌면 미시간 호수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약간 곱슬이면서도 더벅머리인 조그마한 사람이 두 팔로 그를 안아 태평양 공원 선교부(The Pacific Garden Mission)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멜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벽에 기대고는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해리 먼로(Harry Munro)라는 분은 찬송 몇 곡을 부르고 나서, 사람들에게 방금 들어온 낙오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멜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어느 그리스도인 모임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멜 트로터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중에 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을 때, 맨 먼저 손을 들고 나간 사람이 바로, 그 낙오되었던 인생, 멜 트로터(Mel Trotter)였습니다. 저녁 9 시 10 분에 해리와 멜이 낡은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음 교제를 하는 동안,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영광 가운데,

멜 트로터(Mel Trotter)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로티는 머지 않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남편, 멜 트로터(Mel Trotter)는 태평양 공원 선교부(Pacific Garden Mission)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그 후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Grand Rapids)에서 연합 구조 선교부(Union Rescue Mission)를 세웠고, 미국에서 67개의 다른 선교부 창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가장 유능한 전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한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백한 죄이며, 절대로 잊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백하지 않은 죄이다.”<sup>15</sup>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20-21).

● 남편 살해자를 용서한 멘다 튜너<sup>16</sup>

(Menda Tuner, Who Forgave The Repentant Murderer of Her Husband)

멘다 튜너(Menda Turner) 부인은 그의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녀의 남편이 그의 트럭으로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아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갔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가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을 모아서 그를 찾으러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의 트럭이 길옆 개울에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튜너의 시신은 길 한가운데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은 약탈당하고 없었습니다. 멘다에게 있어 이것은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었는데, 상황을 보니 그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을 그냥 지나쳤거나 아니면 강탈해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코퍼 벨트(Copper Belt) 지역에서 그 동안 봉사로 얻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멘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짐을 싸서 영국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잠비아, 바로 그 곳에서 계속 주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을 지나는 앙골라의 난민들 중에 수 백 명의 굶주리고 병든 자, 그리고 죽어 가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머니”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15 년이 지난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 어떤 사람이 그녀를 보러 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녀가 밖에 나가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한 아프리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잡고는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당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차에 있었던 것과 당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강탈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당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멘다 부인, 제가 바로 당신의 남편을 살해한 네 명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침례를 받고 저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한 성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당신에게 저의 죄를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세 명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제 잘못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던 때의 모습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했었던 일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크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발을 붙잡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만일 용서를 받지 못하면 침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국의 한 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멘다 튜너 부인은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한 후, 그녀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아드님을 죽인 일에 공범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마 6:14)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살인한 자의 회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은퇴해서 영국으로 돌아갔고, 근래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 ● 테레사의 간증<sup>17</sup>

(Teresa's Testimony)

도나 테레사(Dona Teresa)는 스페인의 정치적 격동기에 멕시코로 이민간 한 교양 있는 스페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녀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믿음이나 교회를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그녀를 주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테레사는 그녀의 고급 아파트 안에서 뒤쪽으로 보이는 빈민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세련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그녀의 감각에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정이 특별히 그녀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부

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가 번 것을 가지고는 그의 여섯 식구가 먹을 것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떡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테레사가 그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그녀에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테레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주교인이며 영원히 천주교인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도나 테리(Dona Teri, 테레사의 애칭)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는 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돈 로베르토(Don Roberto) 라는 사람은 그녀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알아내고, 곧 그녀를 찾아가 그녀에게 복음을 재차 전했습니다. 무려 17 년 동안이나 이 가족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에게 그녀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께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를 드리면서, 주님께는 나와 무릎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녀는 한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아르헨티나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의 교회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찬양과 그들의 친절에 감명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날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났었던 일, 천주교에서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만족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밤 그녀는 자

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과의 인격적 만남이란 것을 알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의 옆집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야말로 그녀의 삶에 있어 ‘**뉴메로 우노(numero uno)**’ — (최고의, 제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곧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친척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assembly)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가랴(사가)<sup>18</sup>  
(Zachariah(Zach) Finds The Saviour)

사가(Zach)는 자신의 쾌락을 즐기며 또한 졸업장을 얻기 위해 공대에 들어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위대한 분이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여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꿈을 꾸면서라도 그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 말이 계속 그의 컷전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그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그가 꿈속에서 본 그 여학생이 자기가 앉은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그만 일어나 식당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그 여학생이 그의

맞은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서 그는 또 다시 음식을 그대로 둔 채로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저녁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네 번째 식당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 대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왜 그 여학생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며, 그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수잔(Susan)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가의 친구들이 그녀를 만나 사가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가라는 학생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물론 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그를 당신 방에 데리고 오면, 당신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다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잔은 도와주기로 했지만,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사가를 수잔의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오기를 주저했지만 그의 친구들의 격려로 수잔의 방으로 왔습니

다. 수잔은 성경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사가는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 잃었다 찾은 영혼, 그레그  
(Greg, The Lost and Found Soul)

그레그(Greg)는 정착을 모르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정든 곳과 안정된 곳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론토(Toronto)를 떠나 앨버타(Alberta)의 애드몬턴(Admonton)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그의 친구가 레드 디어(Red Deer)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의 아버지의 주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집을 떠나 많은 돈을 벌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온타리오(Ontario)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그(Greg)가 애드몬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가방과 함께 그의 몸에 있는 것 외에는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드 디어로 가는 고속도로를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그를 차에 태워서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 주 후에 다시 그 곳을 떠나 크로우스네스트 패스(Crownsnest Pass)라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젊은 청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서서, “태워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 그레그(Greg)는 차를 타고 싶지는 않았지만, 젊은이들이 “그러지 말고 타세요. 저희들이 다음 도시에까지 태워 드릴게요” 라고 강

권을 해서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운전하는 사람이 “잠 잘 곳은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레그는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청년이 “오늘밤에 호텔에서 저희와 만나요. 그러면 숲에 있는 저희들의 숙소로 모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대로, 그 청년들은 석양에 나타나 그레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레그(Greg)는 그 두 청년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레그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동양의 신비주의나 명상, 그리고 뉴 에이지(New Age) 철학에 대해 상당히 개방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그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에 나갔는데, 나가는 길에 공기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그가 할만한 일이 없어서 이제 그의 짐을 챙겨 가지고 그곳을 떠나려고 다시 숲에 있는 캐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레그(Greg)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독감으로 인한 고열로 그곳에서 2~3일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친절하게도 블래어(Blair)라는 사람이 가끔 그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레그는 자신이 성경캠프에 와 있다는 것과 블래어는 그 캠프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회복되어 캠프장 주변에서 일하면서, 식사 때에는 블래어씨 부부와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주님에 대해 말을 하면서도, 그에게 주님을 영접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 지난 후에 그레그(Greg)는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상한 힘이 그를 그곳에 더 있도록 붙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레그는 그가 그곳에 숙식하면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의는 받아들여졌고, 캠프의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캠프장이 가까운 곳에 그리스도인이 주인인 모텔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래서 그는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일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그의 질문들에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루 휴가를 내서 산에 올라가 그 일에 대해 결정을 하기 전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모텔에서 나와 100미터도 가기 전에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는 정말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풀밭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그의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는 펄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모텔에 돌아왔을 때, 모텔 주인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얼굴에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늘은 사라지고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난 후에 그는 캠프에서 공적으

로 그리스도를 시인했는데, 그로 인해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온타리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그 (Greg)가 가방을 도둑 맞은 일, 태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태워준 그리스도인, 캠프장으로 인도된 일, 독감으로 인해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일,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듣게 된 일, ...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 회심한 이슬람교도, 압델

(Abdel, The Converted from the Muslim)

압델(Abdel)은 이슬람교에 너무 열정적이어서 코란을 모두 암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우연히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천 유스호스텔에 왔을 때, 그는 그곳에 소수의 모슬렘 교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매일 그곳에 와서 여러 가지 엉뚱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한 그는 사람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인도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면,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전혀 듣지도 못한 무관심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그 유스호스텔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약 3 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던 분은 영국을 여행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압델로 말미암아 야기된 불쾌한 마음을 곧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집을 잃게 되었고, 어느 날 바닷가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질문들을 다시 들었고, 또 그에 대한 답들도 생시에 들은 그대로 모두 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침 2 시 30 분 그 바닷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분은 압델을 떠나 멀리 가고 없었지만, 성령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압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압델은 후에 주님을 위한 아주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의 보내신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The Messenger)보다는 하나님의 말씀(The Message)이 더욱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그곳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압델의 마음에 있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슬람교도, 아메드  
(Ahmed, the Jordanian)

아메드(Ahmed)도 또한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는 요르단 사람으로서 국경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오토바이를

타는 요르단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해서 앞에서 말한 그리스천 유스호스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매일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랍어로 된 성경을 꺼내어 5 일 동안에 구약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가 구약성경을 다 읽을 즈음에, 한 유대인이 그에게 다가와 그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그의 어머니가 구원받고, 어머니께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는 그의 아버지, 아들, 여자 형제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 사회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메드는 “만일 내가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는 모하메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메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유스호스텔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어떻게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그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려는 권고를 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살아 계신 사랑의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요르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메드는 역대하 16:9절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실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

● 제가 어디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Messiah?)

레오폴드 코온(Leopold Cohn)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럽의 랍비인 그는 다니엘서 9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26 절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망설이다 나이 많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랍비는 아주 경박한 말투로 “뉴욕에 가보시오. 그곳에 가면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뉴욕에 와서 길거리에서 메시아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떤 예배당을 지날 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마구간을 사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서 복음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가져온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택시 운전사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그의 차에 타게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집에 가면, 다니엘서 9:26절과 이사야서 53 장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

고 일이 끝난 후, 집에 가서 두 곳 모두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다니엘서 9:26절을 읽을 때에,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이것은 그에게 있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타이투스(Titus) 장군에 의해 주후 70 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벌써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읽으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이 반 유대주의에 대한 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5 장을 읽으며 신약 성경이 축복의 책임을 알게 되었고, 11 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읽어서 약 2 주가 지난 다음에는 계시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그가 전쟁 때에 낙하산 부대의 일원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는 헬몬산 점령 등 큰 싸움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동료들이 열두 명이나 살해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아주 강박해져 있어 15 년 동안이나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약성경을 다 읽을 때쯤에, 그에게는 그가 기대하지 못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에스겔서 36: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드

러워 졌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울기 시작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네 시간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눈물과 부드러워진 마음도 그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손님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안과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 ● 진리를 앎으로 자유를 얻은 요한

(Johan's Story)

요한(Johan)은 네덜란드 태생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공황 때에 가정에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는 위궤양으로 피를 흘려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아버지를 따로 조용히 불러 “당신의 아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로 자유롭게 떠나게 놔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같이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자유는 동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홍해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일랏(Eilat)이라는 도시 가까이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밤에 그는 별을 보며 "그래, 틀림없이 창조자가 있어!"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그늘에 앉아 배들이 항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저거야. 만일 내가 세계 일주를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낫선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역시 또한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Johan)은 그에게 자기가 만족을 얻기 위해 세상을 여행하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존(John)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저는 세계 일주를 두 번이나 했는데, 끝이 없고 또한 만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저는 저를 만족케 하시는 분을 찾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으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제게 흠정역 성경(KJV)을 한 권 주셔서, 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존의 눈을 볼 때, 그는 분명히 그 무엇인가 진실을 발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존이 한달 전에 구원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자기의 오두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로 자기의 오두막에 장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지도는 발견하지 못

하고, 그의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1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요한(Johan)과 존(John)은 그후 함께 광야에서 23 년 동안이나 그들을 어둠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 ☒ 맺는 말 (Conclusion)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시 40:5).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

여 그를 찬송할지로다”(시 107:21).

여기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극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정한 구원의 역사도 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혁신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확일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양육 받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때로 자신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미미하고 별로 특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과 세상에 퍼트렸던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들(Trophies of Grace)’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경험들은 다 흥미 있고 또한 기념할만한 것들입니다.

동시에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지, 정, 의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독창적이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백만 개의 퍼즐 조각을 정확히 맞추시며, 각 나라 각 민족들 중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하늘의 백성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원한 경탄과 경배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은 사무엘 데이비스(Samuel Davies)가 지은 다음과 같은 찬송에 의해(1700 년대에 지은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유명한) 찬미를 받고 계십니다.

보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방법들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존엄하고 신성한 방법이며  
당신의 은혜는 다른 모든 경이 위에 빛나는 영광!

후렴 :  
당신과 같은 용서의 신이 어디 있나이까?  
당신과 같은 자비와 은혜를 누가 가졌나이까?

큰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도 아끼시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갖는  
특권이요 영광이시니이다.

경이로움과 큰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깊이 얼룩진 범죄들을 용서받았나이다.

## 발행인 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욥기 5: 8-9).

1985년 10월, 우리 「선교회 미션하우스」 부설기관인 「어린이전도의 집」 동역자들은 남해안 섬지역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집회와 교제하게 될 성인들을 위하여 국내외 몇몇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알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섬 전도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급받은 헌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성경 구입은 노년에 계신 미국인 동역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국제적인 성경 보급하는 단체'의 총재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도여행 두 주간 전, 소개 받은 그 단체의 국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서울 힐튼호텔로 갔습니다. 총재와의 면담은 총회 일정이 너무 바쁘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시간 단위로 짜여진 프로그램 중 10분 휴식시간이 있을 때, 총재는 호텔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통역자와 함께 다음 시간에 대하여 서로 조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회의장과 사무실을 오가는 짧은 시간만을 이용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휴식 시간마다 미리 문 앞에 대기하여 이동중인 총재와 통역하시는 분의 그 큰 보폭과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 바짝 붙어서 준비해 온 소개 편지를 보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정을 전하였습니다.

그 총재 분은 매번 휴식 시간이 되면 이 귀찮은 손님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했는지 자기의 사무실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면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총회가 중반에 들어선 오후에 우리는 함께 만나 곧 있을 섬지역 전도여행 계획과 섬지역 현황들을 말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국제 총재분은 “이 만남을 나는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칙에는 회원이 아닌 타인은 우리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총재인 저는 회칙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참 이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가우뚱하고 그 사무실을 나와 선교사님과 짧은 대화 중에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정리한 후, 귀가하려고 호텔 정문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여보세요!” 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몇 걸음 걷는데 또 부르는 소리에 다시 뒤돌아 보니 중년을 조금 넘은 듯한 신사 한 분이 우리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다가 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침부터 누구를 만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당신 두 사람이 회의장과 저 사무실을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바빠 오가며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들은 그는 조용히 생각한 후, 두 손으로 조금만 기다리라고 표시한 후, 바쁜 걸음으로 자신의 숙소

로 갔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누굴까?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왜?' 하는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조금후, 그 신사 분은 우리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어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스런 자세로 두 손을 팔짱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중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이 돈으로 꼭 성경을 구입하겠다고 약속 해 주십시오."

제가 "예"하고 대답하자, 그 신사 분은 손을 내밀어 움켜진 주먹을 펴서 두루마리처럼 푹푹 말았던 많은 지폐를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독일 마르크로 766 정도 되었으며, 신약 성경 400권을 도매 값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1 마르크당 300원, 2000년 2월 현재 1 DM = 580원임.)

저는 그 분께 명함 한 장을 부탁하여 받은 후, 성경을 구입한 영수증을 꼭 보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호텔을 빠져 나왔습니다. 귀가중 택시 안에서 명함을 꺼내어 본 우리 두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 중에 감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면했던 두 사람은 각각 국제적인 단체의 책임자였습니다. 한 분은 선교단체의 총재이고 다른 한 분은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독신주의 연맹" 총재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께 "자매님! 집에서 호텔로 가는 중 마음이 어떠하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전도서 2:26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도서 2:26).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교훈)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과 어떠한 이유로 오늘이라는 날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히브리 사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내가 득의한 것이)-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스더 4:14).

또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책에 수록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섭리하심과 사랑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창조주! 위대하신 그 이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며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

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한일서 4:9).

단 한번 뿐이며 짧은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도서 2:26).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도서 2:18-23).

오늘 당신께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김으로 금생과 내생을 그분 품안에서 평안히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션하우스에서 발행인

이은정

각 주  
(ENDNOTES)

PART I

- 1 Charles Haddon Spurgeon, *Treasury of Davi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V:209.
- 2 Excerpted with permission from [How Color Affects Your Moods and Health] by Lowell Ponte, *Reader's Digest*, July 1982. Copyright 1982 by the Reader's Digest Assn., Inc.
- 3 Edmund Bolles, *Remembering and Forgetting* (New York: Walker and Company, 1988) p. 139.
- 4 Quoted by Mark Looy in [I Think: Therefore There is a Supreme Thinker,] *Impact*, October 1990, San Diego: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p. 2.
- 5 Roger Penrose, [Those Computers Are Dummies,] *Time* Col. 135, No.26, June 25, 1990, pp.74-75.
- 6 Isaac Asimov, [In the Game of Energy and Thermodynamics You Can't Even Break Even,] *Smithsonian Journal*, June 1970, p. 10.
- 7 Drs. Don DeYoung and Richard Bliss, [Thinking About the Brain,] *Impact*, February 1990, p. 1.
- 8 Jerry Bergman, [Mankind-the Pinnacle of God's Creation,] *Impact*, July 1984, p. 2.
- 9 William Hartston, *The Kings of Chess* (New York: Harper &

- Row, Publishers, 1985), pp. 47, 71.
- 10 Spurgeon, *Treasury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I:305.
- 11 Stuart E. Nevins, *Planet Earth: Plan or Accident*, Impact #14, pp. 1-4.
- 12 Helga Menzel-Tettenborn and Gunter Radtke, *Animals in their Worlds* (New York: Grosset & Dunlap, 1972), p. 29.
- 13 Ibid., p. 56.
- 14 Ibid., p. 165.
- 15 M. R. DeHaan II, *Our Daily Bread*, June 8, 1991.
- 16 David C. Egner, *Our Daily Bread*, April 15, 1991.
- 17 Menzel-Tettenborn and Radtke, *Animals*, p. 297.
- 18 Michael E. Long, [Secrets of Animal Navigation,]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June 1991, p. 76.
- 19 J. Sidlow Baxter, *Awake, My Hear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November 1978), p. 36.
- 20 Adapted from [Creatures of the Namib Desert,] National Geographic Video, narrated by Burgess Meredith, 1977.
- 21 Adapted from *The Living Planet: The Northern Forests*, Time-Life Video, narrated by David Attenborough, 1987.
- 22 Menzel-Tettenborn and Radtke, *Animals*, p. 233.
- 23 *Time Magazine*, December 28, 1992, p. 76.
- 24 Michael E. Long, [Secrets of Animal Navigation,] *National Geographic*, January 1991, p. 76.
- 25 Lucy Berman, *Nature Thought of It First* (New York: Grosset and Dunlap, 1971), p. 83.
- 26 USA *Today*, April 23, 1993, p. 1.



- 27 Immanuel Kant, [The Critique of Pure Reason,]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52, XLII:187.
- 28 Quoted in [If Animals Could Talk] by Werner Gitt and K. H. Van Heiden, *Christliche Literatur-Verbreitung e. V.*, Bielefeld, Germany, 1994.
- 29 Alex Ross, [Choice Gleanings Calendar,] August 2, 1991.

## PART II

- 1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included in most hymnals.
- 2 Ruth Bell Graham, *Legacy of a Pack Rat* (Nashville: Oliver Nelson, 1989), pp. 37-39.
- 3 *Guideposts*, January 1991, pp. 24-28.
- 4 H. G. Bosch, *Our Daily Bread*, March 6, 1991.
- 5 *Memorials of a Quiet Life: A Memoir of Richard F. Varder* (Grand Rapids: Gospel Folio Press, 1934), p. 119.
- 6 *Assembly Annals*, August 1946.
- 7 Mark Wheeler, [Secure in the Storm,] *Kindred Spirit Magazine*, Summer 1986, pp. 8-10.
- 8 H. G. Bosch, *Our Daily Bread*, April 12, 1986.
- 9 [Two O'Clock at Entebbe,] *Uplink Magazine*, February 1991, pp. 12-14.
- 10 Percy O. Ruoff, *W. E. Vine: His Life and Ministry* (London: Oliphants Ltd., 1951), pp. 18-19.
- 11 Source: Olive Fleming Liefeld, *Unfolding Destin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pp. 235-237.

- 12 G. C. Willis, *I Was Among the Captives* (Hong Kong: Bible Light Publishers, n.d.), pp. 84-89.
- 13 From *Our Daily Bread*, reading for Saturday, September 7, 1991.
- 14 From *Our Daily Bread*, Tuesday, April 21, 1992.
- 15 Dr. J. Allen Blair, *Profile of a Christian* (Westchester, IL: Good News Publishers, n.d.), pp. 30-31.
- 16 Tony Lawman, *From the Hands of the Wicked* (London: Robert Hale Ltd., 1960), pp. 63-64.
- 17 *Ibid.*, p. 42.
- 18 *Ibid.*, p. 44.
- 19 *Ibid.*, p. 44-45.
- 20 Charles Haddon Spurgeon, *Treasu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IV:212.

### PART III

- 1 J. H. Jowett, *The Best of John H. Jowet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p. 14.
- 2 Sikhism is a religion in India that seeks to merge Muslim and Hindu teaching into one religion.
- 3 Archie Naismith, *1200 More Notes, Quotes, and Anecdotes*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1975), p. 27.
- 4 *Our Daily Bread*, April 19, 1989.
- 5 F. W. Boreham, *A Bunch of Everlastings* (London: The Epworth Press, 1926), p. 60.
- 6 C. S. Lewis, *Surprised by Joy* (New York: Harcourt Brace

- Jovanovich, Publishers, 1956), p. 211.
- 7 Calling the Lord [The Hound of Heaven] is from the famous poem of the same name by Francis Thompson.
- 8 Lewis, *Surprised by Joy*, p. 226.
- 9 *Ibid.*, p. 228.
- 10 *Ibid.*, pp. 228-229.
- 11 *Ibid.*, p. 229.
- 12 *Spurgeon, the Early Year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7), p. 267.
- 13 Charles Haddon Spurgeon, *Treasury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8:370.
- 14 Adapted from [How to Rise Above Discouragement,] *Discipleship Journal*, July 1982.
- 15 Adapted from UNSHACKLED tape #544, Pacific Garden Mission, Chicago.
- 16 As recounted by David Long, formerly of Angola.
- 17 As recounted by Dorothy Harris, of Tehuacan, Mexico.
- 18 As recounted by Dr. Betty Brooks, formerly of Lusaka, Zambia.



본 사  
판 권  
소 유

##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

판권소유 © 도서출판 - 미션하우스

등록번호 1989년 5 월 29 일 (등록 제 8-66호)

인 쇄 / 2000 년 2 월 25 일

발 행 / 2000 년 3 월 10 일

저 자 / William MacDonald

옮 김 / 조 성 훈, 이 강 국

발행인 / 이 은 철

발행소 / 도서출판 - 미션하우스

주 소 / 120-012 서울 충정로 우체국 사서함 153호

전 화 / (02)3662-5252(FAX겸용), 3663-5252

---

정가 10,000원